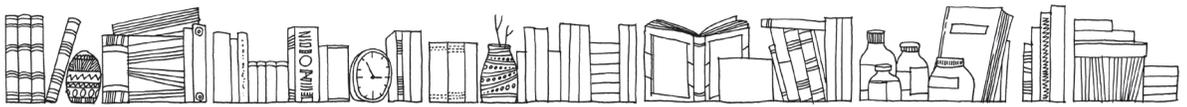




개편을 하고 글을 쓰고, 내고, 퇴고를 하는데 6주의 시간이 걸렸다. 26일에 드디어 마무리를 했다. 오늘 저녁은 6개장이었다. 6시간 후면 하루가 바뀐다. 교6부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의 길은 우리가 선택했으니 끝까지 우리가 만들어 갈 거다. 우리를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싫어요.

-편집장 손채은(5학년)



차례

여는 글 2 개편 엔딩(feat.마감)

1부 우리끼리 4 간디인은 불쌍하다
-배고픈 간디인 X-FILE-

배움 속으로 11 이 수업 어때, 완전 새롭지?

반가워요 후원인 27 간디IN 때문에 후원을 하신다고?

2부 특집 31 어명을 받들어라!!!
부제: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은 영화에서만...

3부 생활관 이야기 44 개미와 베팅이
- 두 괴생물체 미스터리

화제의 인물 54

간디IN의 짧은 소식 60 간디인 스케줄러 / 간디IN의 짧은 소식

기자 후기 69 기자 후기



개편 엔딩 (feat.마감)

손채은 편집장(5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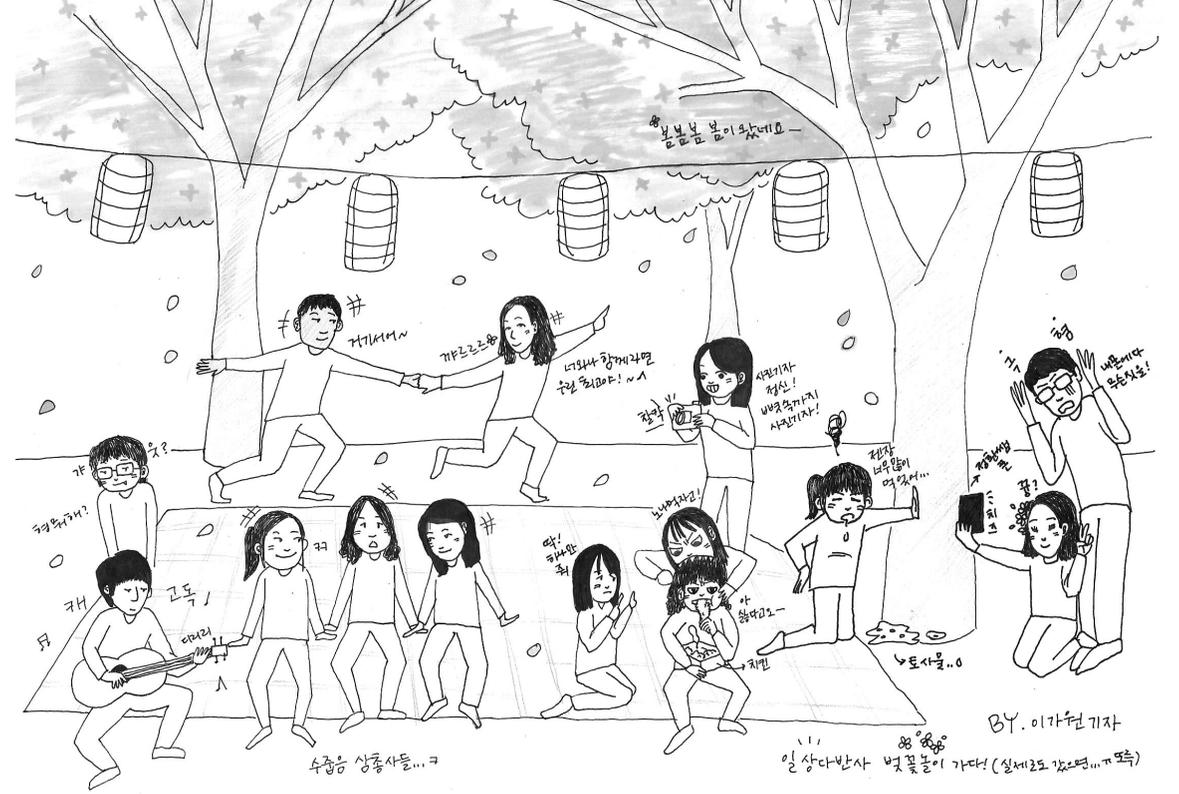
따뜻한(혹은 그러기를 바랐던) 봄이 왔습니다. 봄은 참 나긋하면서도 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존재 같습니다. 간디인들도 봄의 따뜻함에 겨워 바깥 정자에 드러누워 잠을 자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또 새 학기를 맞아 바빠 움직이는 간디인도 볼 수 있네요. 새 봄을 맞은 일상다반사는 어땠을까요?

일상다반사는 힘들고 힘들고 힘든 지옥의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겨울 방학, 4일간 연수했던 것을 바탕으로 묵은 때를 훌훌 털어 버렸는데, 장장 4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결정이 났습니다. 그에 기자들은 새 학기 초부터 기가 빠져 다크 서클이 불까지 내려왔습니다.

평소 기자들간의 관심이 부족하던 이유로 1부, 2부, 3부로 편성해 꼭지를 나눴습니다. 정통성을 밀고 나가기 위해 기존에 있던 '배움속으로, 우리끼리, 반가워요 후원인'을 맡은 1부, 특집 호처럼 학교 문화나 이슈에 대해 깊게 조사하고 움직이는 2부, 마지막으로 간디인의 가장 핫한 꼭지인 '화제의

인물, 생활관 이야기, 간쫘소'를 엮어 3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봄의 향기에 너무나도 깊게 취해 있던 걸까요. 기자들은 이른 여름에 깨어난 과리마냥 비실비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정통성을 밀고 나가자며 쉽게 풀어나가려고 한 1부는 생각지도 못한 기사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무려 신생 수업을 취재해야 돼서 6개의 수업에 참관하고 인터뷰를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최유경 기자는 인터뷰 녹음 파일이 날아가 애플 먹기도 했죠. 새로 만들어진 2부는 방향성을 잡느라 2주 내내 밤샘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매일 밤마다 만난 김예림 기자, 김민석 기자는 서로 연애하는 줄 알았다고 하며 김민석 기자는 편집장인 저에게 예림 누나라고 잘못 부르기도 했습니다. 좀 수상합니다. 재미 집합소인 3부는 꼭지들을 엮어 내느라 이한솔 기자와 저는 머리를 맞대 고민하여 마침내 만족스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꾸만 늦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끝끝내 테드라인을 밀어 버린 사단까지 났지만 기자들은 아직도 뭔가 부족합니다. 당장 내일이 글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다들 무거운 기사량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각 부마다 지정된 기자 수가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래도 명색에 2년 이상은 활동한 엘리트 기자단인데, 다 개편 때문이라고 위로를 하게 되네요.

그렇다고 너무 막 먹구름 낀 날씨는 아닙니다. 일상다반사를 환하게 비춰 줄 새작 신입 사진 기자들이 피었습니다. 1학년에 김담 군과 2학년에 최문형 양이 들어왔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글기자는 함께할 친구가 없습니다. 덕분에 사진기자 4명이나 함께하게 됐는데, 앞으로 사진기자의 폭넓은 활동을 바라며, 퀄리티 높아질 사진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너무 춥습니다. 아직 치마를 입고 다니기엔 다리가 너무 시렵네요. 이미 내 집에선 벚꽃이 피고 옷을 가볍게 입는데 덕산에선 검은색 코트를 몸에 엮고 다닙니다. 내일은 햇빛이 쨍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의 봄 호가 완성되려면 먼 것 같지만, 그래도 개편을 김예림 기자 하나라도 반기며 좋아하니 다행입니다. 제 짝을 찾아서 그런 걸까요.^^/^^

이제 또 새로운 발돋움 했습니다. 이 새 시작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진 모르지만, 언제나 새 시작은 대청소를 한 듯 상쾌합니다. 사기를 돈을 겸 봄나들이라도 떠날까요. 치즈님과 함께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봄 호가 끝나면 다 같이 이 앞 저수지라도 가서 벚꽃 비를 맞으며 치킨 한 마리 뜯어야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도 내일은 이상하게 맑은 것처럼 일상다반사 기자들에게도 이 시작으로 더 맑아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일상다반사 기자들은 마감에 위해 글을 써야 하니까요^^ ☺

1부

우리끼리

간디인은 불쌍하다



배움속으로

이 수업 어때, 완전 새롭지?



반가워요 후원인

간디인in 때문에 후원을 하신다고?



글. 이예슬
글. 최유경
삽화. 이영경
사진. 박성현



간디인은 불쌍하다

-배고픈 간디인 X-FILE-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 '추워', '졸려', '귀찮아' 등 다양하겠지만, 아마 '배고파'가 1등일 것이다. 식판 한 가득 밥을 퍼 배 터지게 먹어도,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몰래 라면을 먹어도 한 시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배가 고파 온다.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아도 잠잠하던 배꼽시계가 학교만 오면 요란하게 울려 대는데, 혹시 누군가 학교에 마법이라도 건 걸까? 지금부터 그 내막을 날날이 파헤쳐 보겠다. 이름하야 '배고픈 간디인 X-FILE'!

FILE 1. 간디인은 얼마나 배가 고프는 걸까?

<자료 정보>

간디인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그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아래의 자료는 설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자료 내용>

1. 설문 항목
 - 1) 평소 배가 얼마나 고프나요?
 - 2) 언제 가장 배가 고프나요?
 - 3) 왜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시나요?
 - 4) 가장 효과가 좋았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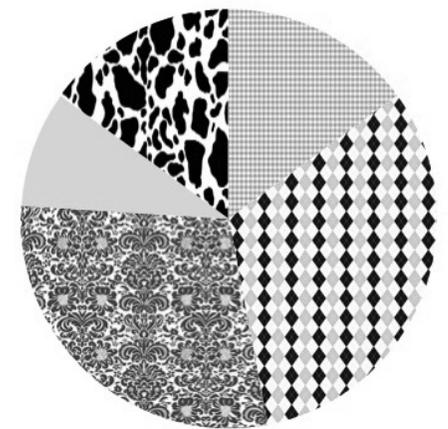
2. 설문 결과

질문 1. 평소 배가 얼마나 고프나요?

-항목: 매우 많이 고프다, 많이 고프다, 조금 고프다,

가끔 고프다, 배가 고프지 않다

평소 배가 얼마나 고프나요?



- 매우 많이 고프다
- 많이 고프다
- 조금 고프다
- 가끔 고프다
- 배가 고프지 않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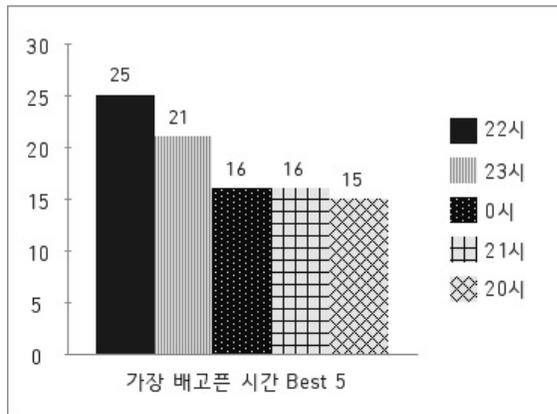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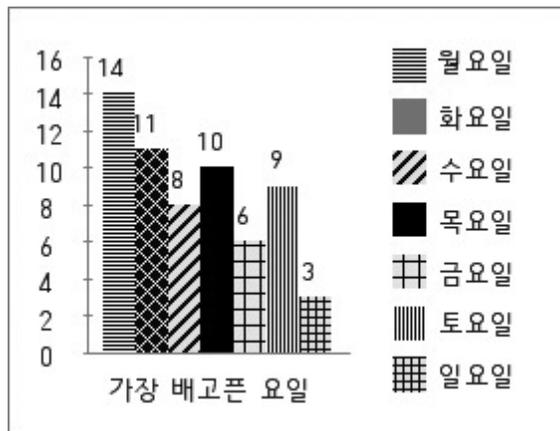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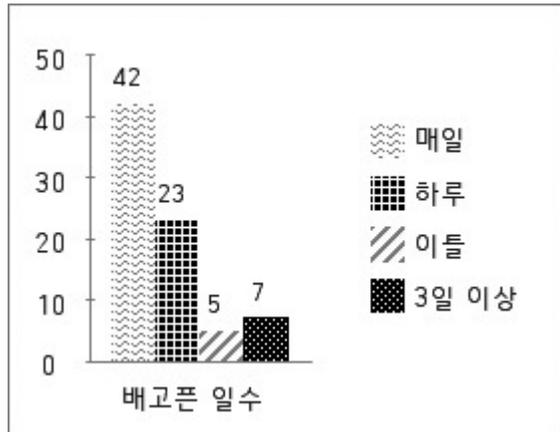
- 1위. 많이 고프다(37.6%)
- 2위. 조금 고프다(34.1%)
- 3위. 매우 많이 고프다(17.6%)
- 4위. 가끔 고프다(10.6%)
- 5위. 배가 고프지 않다(0%)

질문 2. 언제 가장 배가 고프나요?

-항목: 요일별(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시간별(0시~24시)

-중복 선택 가능



<기타>

- 6위. 16시(14명)
- 7위. 10시(11명)
- 8위. 19시(10명)
- 9위. 12시, 17시(9명)
- 10위. 1시, 9시, 11시(7명)
- 11위. 14시, 15시(6명)
- 12위. 18시(5명)
- 13위. 3시, 7시, 8시, 13시(4명)
- 14위. 6시(2명)
- 15위. 2시, 4시(1명)
- 16위. 5시(0명)

질문 3. 배가 고프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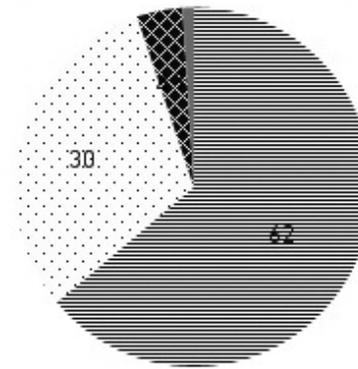
-항목: 배고플 나이라서, 식사를 많이 걸러서, 식단이 부실해서(양 x 전체적인 구성), 간식이 부실해서, 기타

-중복 선택 가능

<결과>

- 1위. 배고플 나이라서(63.9%)
- 2위. 간식이 부실해서(30.9%)
- 3위. 식단이 부실해서(4.1%)
- 4위. 식사를 자주 걸러서(1%)

배가 고프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배고플 나이라서
- 간식이 부실해서
- 식단이 부실해서
- 식사를 자주 걸러서

<기타 의견>

원할 때 먹지 못해서
 많이 움직여서
 저녁 시간이 너무 일러서
 (밤에 배가 고프다) 등

질문 4. 가장 효과가 좋았던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주관식)

-카페, 야식 등 학교에 있는 먹거리를 이용한다, 라면이나 매점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간식을 먹는다, 그냥 잠을 잔다, 유기농 간식을 가져와서 먹거나 잠을 잔다, 물배를 채운다, 친구의 간식을 뺏어 먹는다, 침을 삼킨다, 없다

간디인 설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평소 배가 얼마나 고프냐는 질문에 '배가 고프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즉 모든 학생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학생들을 배고프게 하는 걸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꼽은 배고픔의 원인은 배고플 나이라는 것이었고, 간식이 부실하다는 의견도 꽤 많았다. 주로 나오는 간식의 양이 '빵 하나, 음료 하나', '계란 2~3개', '고구마 한 개', '한 방에 떡볶이 한 그릇' 등인 것을 생각하면 성장기 청소년에게겐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 또한 원할 때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심리적인 작용도 배고픔에 한몫하는 듯하다.

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냐고? 이는 바로 간디학교의 먹을거리 철학과 그에 따른 먹을거리 규칙 때문이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 상세한 내용이 담긴 파일을 공개하겠다.

FILE 2. 간디학교의 먹을거리 규칙

<자료 정보>

간디학교의 먹을거리 철학과 관련 규칙을 간단히 정리한 자료이다.

<자료 내용>

- 간디학교의 먹을거리 철학
- 생태적인 음식
- 로컬 푸드 지향
- 생산 및 가공 과정이 공정한 음식
- 건강한 음식 등

-개정 전(기사 내의 모든 조사는 개정 전에 이루어졌다)

- 1. 일반 과자, 음료, 라면, 즉석 식품, 포장 식품(배달 음식 포함), 통조림, 수입 과일은 반입을 금지한다.

2. 친환경 매장의 과자나 음료 등은 반입을 허용한다.
3. 집에서 직접 만든 식품은 반입을 허용한다.
4. 매점을 가는 것은 금지하며, 구매한 것이 없더라도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별칙이 적용된다.
5. 단, 주말 덕산면 소재지는 외출 공간으로 인정되어 위의 금지 식품들을 먹어도 별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6.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은 금지한다.

-최신 개정안(2015년 4월 9일, 348회 가족회의에서 개정됨)

1. 개인이 가져오는 일반 과자, 음료, 빵 등은 반입을 허용하되, 가급적 자제하도록 한다.
2. 작업장, 동아리, 소모임, 수업, 회식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 식품은 가족회의에서 동의를 구한 후 사용해야 한다.
3. 라면, 즉석 식품, 포장 식품(배달 음식 포함), 통조림, 수입 과일은 반입을 금지한다.
4. 집에서 직접 만든 식품은 반입을 허용한다.
5. 기타 규칙은 이전과 같이 적용된다.

이런 수많은 규칙들 때문에 학생들은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간디학교의 먹을거리 철학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일.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알기에 간디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한 봉지에 2~3천 원이 기본인 친환경 제품을 사 먹거나, 집에서 만들어 와야 했다. 하지만 용돈 아껴 사 온 친환경 과자 한 봉지는 가져온 날 방 사람들과 둘러앉아 집어먹다 보면 10분이 채 되기도 전에 동나기 일쑤이고, 집에서 만들어 온 식품 역시 상할까 봐 오래 두지 못하니까 아무리 아

껴도 화요일이 되기 전에 먹어치울 수밖에 없다. 가끔은 몰래 가져온 일반 식품을 먹기도 하지만, 그 횟수가 허용될 때보단 덜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며 먹는 스트레스가 더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다. 거기다가 먹을거리 규칙을 어길 경우 생태 화장실에 쌓여 있는 똥을 퇴비장으로 옮기는 책임 수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라면을 집어들다가도 내려놓게 만드는 힘이 있다. 애초에 개인적으로 간식을 사 와서 부족한 음식 섭취량을 보충하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먹을거리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집행부는 몇 주간 열띤 논의를 통해 가족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바로 일반 과자와 음료수, 빵, 수입 과일 등은 자제하고, 라면, 즉석 식품, 포장 음식, 통조림만 규제하자는 것. 가족회의 시간에 학년 별로 논의 시간을 가진 후 모두 모여서 식사를 늦추면서까지 다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집행부 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일반 과자와 음료수, 빵 등을 금지하지 않되 각자 자제하고, 라면, 즉석 식품, 포장 음식, 통조림, 수입 과일은 금지한다)이 결국 통과되었다.¹⁾ 이번 개정을 통해 간디인들의 배고픔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일반 과자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회의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쓰레기 발생이 많아진다는 점과 도난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지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교내 곳곳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자, 분리수거를 깔끔하게 하자 등의 대안이 나왔고, 도난 문제에 대해서는 방마다 잠글 수 있는 사물함을 설치하자, 도

난방지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자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허용’이 아닌 ‘자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정기적인 식품 교육을 진행하자, 자제 결의식을 하자 등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간디인들은 일단 집행부 안을 시행해서 생활해 본 뒤, 불편한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시 안전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배고픔을 이겨 내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간 간디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앞으로도 건강한 먹을거리와 배고픔 사이에서 간디인들의 깊은 고민과 현명한 선택이 중요할 듯하다.

이상, ‘배고픈 간디인 X-FILE’을 마친다.

X-File 부록

<비고 1>

간디인, 배고파서 이것까지 해 봤다!

-하루 종일 잠만 잤다.

-샤워실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라면을 불려 먹어 봤다.²⁾

-모든 방을 다 돌며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해 봤다.

-간식으로 나온 한살림 라면 과자를 간식통에 넣고 불려 먹어 봤다.

-라면 스프를 물에 타 먹어 봤다.

-매점에 가 봤다.³⁾

-물 1L를 천천히 나눠 마셔 봤다.

-사감 샘께 식빵을 구걸해서 친구가 가져온 땅콩 버터⁴⁾를 발라 화장실에서 몰래 먹었다.

-매일 밤마다 세상의 모든 먹을 것을 상상한다.

-자는 친구를 깨워 그 애가 가지고 있던 라면을 사 먹은 적이 있다. 잘 자고 있어서 미안했지만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다.

-매번 간담회⁵⁾를 빠지는 후배를 위해 좋아하는 음

식을 물어 보자 된장찌개라고 대답한 후배. 선배들은 다음 날 된장, 감자, 두부 등을 준비해서 된장찌개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사감 샘께 들켜서 된장찌개를 하지 못했다.⁶⁾

-배고픈데 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냥 잠을 잤는데, 고기 먹는 꿈을 꿨다. 만화에 나오는 고기처럼 탐스러운 고기를 한 입 딱 베어 문 순간 잠에서 덜컥 깬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내 팔을 물고 핏고 있었다. 더러웠다...

-1학년 때 일주일간 식당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털었던 기억이 있다. 당시 털었던 품목은 사과즙 한 박스, 꿀 한 박스, 빵, 홍시 등등.

-07학번의 한 선배가 의적단을 모집했던 적이 있다. 당시 1학년이었던 나는 의적단에 들어가 밤에 학교에 내려가 장조림, 김, 밥 등을 털어 먹었던 기억이 난다.

*기자 한 마디: 샤워실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라면을 먹을 정도로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였다. 아, 갑자기 눈물이... 훌쩍.

<비고 2>

힘든(?) 와중에도 학생들은 인간의 본능과 생존 능력을 발휘해 열심히 살아남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있나 했는데,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야식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음식까지 별의별 비법이 다 있다. 지금부터 간디인들의 생존 꿀팁을 소개하겠다. 🍯

1) FILE 2의 최신 개정안 참조 바람.

2) 참고로 간디학교에서는 라면을 금지하고 있다. FILE 2 참조 바람.

3) 학교 옆의 동네 매점에 가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다. FILE 2 참조 바람.

4) 땅콩 버터는 일반 식품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FILE 2의 개정 전 규칙 참조 바람.

5) 생활관에서 방 별로 주로 먹을 것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는 등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다.

6) 생활관에서는 취사가 금지되어 있다.

이 수업 언제, 완전 새롭지?

배고플 때는...



진짜 맛있는 레시피!



이. 생크림새우깡 + 라면스프 = 매운새우깡

이. 간식으로 나온 순대 + 밥 + 라면스프 = 순대국밥

+ 파를 넣으면 맛이 2배!

삼. 식빵 + 토스트기 + 잼, 우유, 사과 등 = 잼토스트

사. 밥 + 참기름 + 간장 + 라면스프 = 야식으로 딱좋은 밥

오. 밥 + 마가린 + 간장 + 기타등등 = 야식으로 딱좋은 밥 ver.2

육. 간식으로 나온 고구마 + 초코가루 = 고구마떡.. 이제만맛있다

학기 초마다 돌아오는 고민, 수강 신청! 겹치는 수업들 중 하나를 고르느라 골머리를 썩이는 일부터 원하는 수업을 쟁취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가위바위보를 해야 하는 일까지 정말 머리가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될 학교 생활에 두근거리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러 신청서를 들고 복도를 걷던 중 마주친 이예슬 기자와 최유경 기자! 새롭게 개설된 수업이 6개나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사대반사의 기자답게 수업 현장으로 출동했는데, 지금부터 몇 학생들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하는, 신설 수업들을 한 번 찾아가 볼까요?

마음까지 평화로워지는 프랑스 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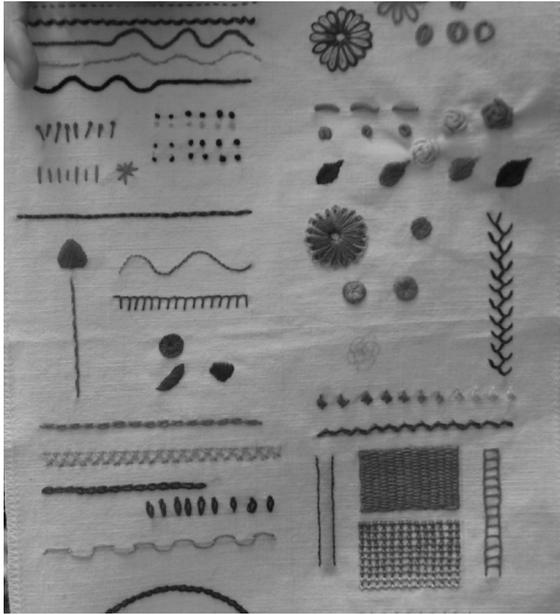
이예슬 기자: 혹시 바느질 좋아해? 그러면 '프랑스 자수' 한번 들어 봐. 이번 학기 수업을 통틀어서 가장 조용한 수업으로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수업이야. 분위기도 다정하고 파스해서 이 시간만 되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야. 내가 너를 위해 수업을 한 번 들어 보고 왔어! 수업은 정말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였어. 섀미 라디오까지 틀어 놓으셔서 노래까지 작게 나오다 보니 어디 카페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 다들 조곤조곤 말해서 나도 덩달아 목소리를 낮추게 되더라고. 다들 자수를 놓는 걸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쭙 보기도 했지.

예슬: 섀미, 프랑스 자수는 십자수나 다른 자수랑 뭐가 달라요?

희라 섀미: 기법이 되게 다양해. 자수는 십자로만 계속 하는 거잖아? 기법이 십자 하나인 거지. 근데 애는 자수 기법이 정말 많아. 지금 하고 있는 이 장미 모양도 또 다른 기법인 섀미야.

예슬: 프랑스 자수만의 특징이 있어요?
희라 섀미: 거의 모든 모양이 가능해. 십자수는 곡선 처리가 힘들잖아. 약간 모자이크같이 되는 건데, 애는 곡선, 직선, 점 같이 거의 모든 선과 면의 연출이 가능해서 실사에 가깝게 수를 놓을 수 있지. 색감도 굉장히 뛰어나. 거의 모든 표현이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예슬: 지금 수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까지 네 번을 했는데, 초급은 거의 끝난 상태야. 한 교시 동안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것 같아. 이전까지는 작품 구성요소를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작품 하나를 만들어 내는 걸 할 거야.



예슬: 그러고 보니, 색 고르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희라 쌤: 그래, 색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해. 이걸 정택이(4학년)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배워서 놓은 꽃인데, 보면 수는 정말 잘 났거든? 근데 색이……(웃음). 여기 책에 있는 원본하고 느낌이 좀 달라.

예슬: 느낌이 뭔가 다르긴 하네요.(웃음) 그러면… 김은수(4학년)씨? 바느질을 안 좋아할 것 같이 생겨서(웃음) 옷 심화도 하고, 프랑스 자수도 하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은수: 제가 별로 그렇게 안 생겼지만, 이런 걸 생각보다 좋아해요.(웃음)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두 개 다 신청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예슬: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은수: 여기 있는 이 점(프렌치 너트)이 제일 어려워. 다른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희라 쌤: 은수가 은근히 수를 잘 놔서 은수인 것 같대니까.(웃음) 감각도 금방 익히고, 조용히 잘 해.

예슬: 어, 그러면 쌤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수가 뭐예요?

희라 쌤: 이거 약간 경쟁심 생길 것 같은데?(웃음) 하린이(5학년)가 지난 시간에 났던 이파리가 정말 예뻐요. 그리고 내가 볼 땐 이 중에서 하린이가 제일 완벽주의인 것 같아. 내면이 촌촌한 사람이라 그런가? 이게 수를 놓으면서 약간 성격도 나오는데, 은수는 쉽게 잘 하고 속도도 빨라. 서경이(4학년)는 굉장히 꼼꼼하고, 색을 정말 잘 골라. 색깔이 되게 좋아. 다연이(5학년)는 조금 너그럽고 풍요롭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풍성해. 표현력이 좋아서 그런가, 다연이한테는 단순한 것보다 이런 어려운 작업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따뜻한 교실에서 잔잔한 음악과 쌤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다 보니 저절로 기분이 편안해지는 거 있지? 프랑스 자수 수업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 같아. 바느질을 정말 못하는 나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질 정도였다니까? 색깔도 정말 예쁘고 모양도 아

기자기해서 귀여웠어. 오늘 만들었던 거울 정말 갖고 싶다!

생활기술 작업장이 있었어?

최유경 기자: 생활기술작업장은 사실 나도 잘 몰라…. 작업장에 직접 참여 중인 고등부면 몰라도 중등부 사이에서는 그렇게 귀에 익은 이름이 아니니까. 올해 새로 생겼다는데, 여기 도대체 뭐하는 데지? 아무래도 담당 교사인 증명 쌤을 만나봐야겠어!

Q. 생활기술이 뭔가요?

A.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기술.(웃음)

Q. 생활기술 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게 있나요?

A. 아직 무얼 해야 할 지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굳이 하고 있는 일을 찾아보자면 난로나 화덕 만들기 정도?

Q. 난로나 화덕을 만드는 재료는 어떻게 구하나요?

A.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물건은 사지만 되도록 재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분리수거장에서 깡통이나 가스통을 주워 와서 사용하는 식으로.

Q. 생활기술 작업장이 생긴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나요?

A. 사실 1~2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새로운 작업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자급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올해 조금 급하게 준비를 했죠.



Q. 지금까지 이뤄 낸 성과가 있나요?

A.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웃음) 아직 한 달밖에 안 된 입장에서 성과를 이야기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Q.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A. 저희가 엇그제 에너지 공방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가스통을 활용한 난로 두 개를 만들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일반 난로보다 저렴하고 연기도 많이 안 나요. 여기 덕산이 굉장히 추워선지 사람들이 난로, 난방 등에 관심이 많아서 이곳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주력사업으로는 난로를 계속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는 자잘하게 에어컨이나 태양광 충전기 등을 만들 계획이에요.

Q. 혹시 작업장 목표가 있나요?

A. 인간이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머리는 많이 쓰는데 손을 쓰는 게 뜸해졌어요. 그런데 인간한테는 손과 머리를 함께 쓰는 본능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본능을 일깨워 주고 싶어요. 그리고 생활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서 스스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작업장이니까 지금 하는 작업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도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취직을 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내 먹고 살 걸 만들어 가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업장에서 배운 것들이 내가 먹고 살 일이 없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은 콘센트를 꽂으면 전기가 바로 나오고 비싸지도 않지만, 미래에는 오일피크나 핵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기를 손쉽게 쓸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돈 있는 사람이야 계속 마음껏 쓸 수 있겠지만, 돈 없는 에너지 빈곤층은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살 거예요. 사실 지금도 촛불 하나 켜 놓고 한겨울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이 작업장에서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활기술작업장에 대해 알 것 같아? 어쩐지, 월, 수요일마다 2층 만광이나 시설실에서 계속 푹푹딱딱 열심히도 만들더라고. 근데 그래도 아직 베일에 싸인 작업장이긴 해. 작업장 사람들도 뭐 하는지 모르고 들어왔다는 소문도 있던데? 어, 저기 시은 언니(4학년)한테 물어 보자!

Q. 생활기술 작업장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어?
시은: 작업장이 필수이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딱히 끌리는 건 없고 사람들은 제빵 작업장 하는 걸 바랐는데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원래 내가 톱니바퀴 같은 것들 만지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증명 샴이 약을 팔았어.(웃음)

Q. 작업하면서 적정기술을 사용하는 걸로 아는 데 그런 개념에 대해 알고 있었어?

시은: 아니, 나는 사실 생활기술 작업장 들어올 때도 여기는 뭐하는 데지 싶기도 했고, 그냥 잘 몰랐어.(웃음)

Q. 더 배우고 싶은 건 뭐가 있어?

시은: 적정 기술 같은 걸 더 배워야겠지, 이론 수업 같은 거 하면 이게 뭐 소린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캠프 같은 데도 가보고 싶어.

아직은 미지에 쌓인 작업장이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하는지는 대충 알 것 같네. 특히 추운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난로를 만든다니 좋은 작업장인 건 확실해. 난로 생기면 내가 첫 번째로 구경하러 가야겠다!

상상만 해도 달콤한 제과제빵 수업들!

이예슬 기자: 이번 학기 가장 화제가 된 수업은 바로 제과제빵이지! 실제로 제과제빵 일을 하셨던 분이 직접 수업을 하신다고 해서 학교가 들썩들썩했던 거, 기억 안 나? 상현 쌤의 부인이시기도 한 윤주 쌤은 무려 명동과 강남에 있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담당도 하셨고, 베이커리 매장 매니저도 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이야. 대단하지? 이번 학기에는 빵 만드는 동아리 '빵아저씨'의 중등부 친구들을 위한 제과제빵 기술 교육 수업과 제과제빵 작업장 수업, 이렇게 두 가지 수업을 새로 개설하셨어. 마침 윤주쌤의 글이 메일로 도착했는데, 같이 볼래?



케이크와 빵 만드는 여자, 조윤주

조윤주(제과제빵 작업장 교사, 육아 휴직 중이신 방상현 쌤 부인)

0. “자기야, 난 내 직업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일이 많아서 지치고 힘들었던 적은 있어도 이 일이 싫거나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

“나도 그런데...”
세상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와 남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좋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어떠한 어려움이 눈앞에 닥쳐도 그 끈을 쉽게 놓아버리는 방법을 택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겨내려고 힘을 낼 것이며,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 일이 더 익숙해지고 더 좋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다소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눈앞에 놓였을 때 쉽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예를 들어 부모님의 지속적인 우려와 반대가 있을 때에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가고 책임진다는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지지, 그리고 부모님을 부드럽고 끈질기게 설득시키고자 하는 내면의 단단한 힘.

1. 언제부터 케이크와 빵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나의 인생에서 언제부터 그 끈이 닿아 있었을까, 생각해보았다. 6~7살쯤 엄마 서랍장에서 요리책을 꺼내어 자주 보곤 했던 기억이 난다. 나름 두 가지 레시피를 섞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던 기억도 어렵듯이 나고... 어린 시절 나는 분명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의 생각이 그렇듯 학생은 공부를 잘 해야 하기에 나 역시 중, 고등학교 시절,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는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했고 그 당시 그나마 관심 있던 분야에 성적에 맞춰 대학에 진학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4년 동안 스스로 학비 충당하며 열심히 즐겁게 생활했으나 지금의 전공 분야에서 일반적인 회사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다.

졸업 후 과 사무실에서 낮에는 친절환 조조교로 생활하다가 퇴근 후에는 제과제빵 학원에서 케이크와 빵을 배웠다. 집에 오면 밤 12시. 그렇게 1년을 준비해서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고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케이크공장 공순이로 직업을 바꿨다.

2. 두근두근 콩닥콩 콩닥콩... 내가 선택한 나의 첫 직장. 새벽 5시 30분이 나의 출근시간이었다. 4시에 기상해서 해 뜨는 건 보지도 못한 채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작업장에 들어와 선배님들에게 타 드렸던 달달한 커피향이 아직도 코에 맴돈다. 또 점심시간 즈음엔 햇볕 쬐는 자라마냥 눈을 감고, 오늘 처음 마주하는 별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나른해지고 노곤해지는 그 짧은 시간을 마음껏 즐겼다. 저녁 6시쯤, 일과 마무리를 한 후에는 동료들과 밤늦게까지 함께했다. 짧은 맛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흥에 겨워 신나게 놀았다. 행복했다. 하지만 이곳도 작업의 능률을 위해 이미 분업화가 되어 케이크 하나를 온전히 만드는 데에도 분할된 파트가 5~6개가 되었고, 점점 전문적인 일에 대한 욕심과 갈증이 날 때쯤 국내 제과제빵 업계에 처음 런칭하는 싱가포르계 회사에 입사할 기회가 생겼다. 나는 그렇게 명동에 열린 1호점의 케이크파트에서 일하게 되었다. 외국계 회사라 그런지 국내 제빵업계에서는 생소했던 새로운 느낌의 마케팅과 운영방식이 많이 적용되었다. 그 예로 베이커들의 전 생산라인이 오픈키친, 즉 공개 운영되었으며, 건물 외부는 전면 유리로 설치되어 오가는 사람들이 항상 볼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위생에도 철저히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날 생산한 빵은 그날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12월 24일에 걸을 수도 없이 명동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생산 준비 때문에 두 달여 간은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던 기억도 난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나만큼 바쁜 간디 쌤과 장거리 연애까지 했

으니, 시간 없어 연애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 같기도 하다.^ 그 외에도 명동에서의 혹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치동 2호점 케이크파트 책임자가 되어 오픈준비를 해 나갔던 경험 또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케이크와 빵에 이어 커피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케이크 카페 매니저로 근무한 적도 있었다. 밤에는 커피학원에서 커피를 배우고 낮에는 매장에서 실습하는 형태로 기술을 익혀 나갔다. 케이크 생산과 관리, 판매 및 고객응대를 하면서 전반적인 가게 운영도 경험하게 되었다.

3. 인생에서 매 순간 맞닥뜨리는 타이밍과 그 순간의 선택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재미나고도 스릴 있는 게임 같다. 해외에서의 제과제빵도 경험하고 싶은 욕심에 유학을 준비하던 중 누리마을 빵카페 오픈준비에 대한 제의를 받았다. 후원인들의 마음과 이곳의 설립취지에 동감하며 유학의 꿈은 잠시 접어 두고 덕산에 내려와 다문화 언니들과 산과 들을 다니며 오디와 산딸기를 따서 케이크를 만들고 우리밀을 사용하여 빵을 구웠다. 처음 접한 우리밀과 천연버터, 유기농설탕, 유정란, 산의 과실들... 이런 걸로도 빵과 케이크를 만드는구나. 이 시골에서. 너무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를 때가 있다. 덕산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특히나 기존 먹을거리에 트러블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이렇게 가까이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해야 할 듯하다.

4. 현재는 남편의 적극적인 배려와 내조로 간디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더불어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마음으로 제과제빵실의 시설도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었다. 방학 동안 시설정비를 위해 서울로 덕산으로 사방팔방 뛰어다녀도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고맙게도 빵아저씨 동아리 설립 멤버이자 누리마을 빵카페 오픈 멤버인 졸업생 장현기군이 기꺼이 시장조사에 함께 해주었다) 물 만난 고기 같다는 남편의 표현 속에 '멋지다'는 뜻과 '두 아들 보느라 힘들다'는 서운함이 동시에 느껴져 미안한 맘이 들지만, 그래도 내 뒤에 항상 세 남자가 버티고 응원해 주는 것을 아니 힘이 나고 한없이 감사하다. 이번 학기 처음 개설된 제과제빵 작업장. 우리의 목표는 '모두가 크루아상과 마카롱을 만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작업장 이름은 '크롱카롱'이란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던지. 제빵과 제과에서 예민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크루아상과 마카롱을 꼬집은 센스가 나를 빵 터지게 했다. 그래도 우린 이미 마카롱을 어설뜨게나마 정복했음에 설레고 행복해하며 일주일 중 이들의 끈끈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때로는 저녁을 반납해 가며 간디 친구들의 간식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야기하기도 한다. 친구들이 매주 간식 맛있었다고 기대한다고 하는 반응들에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연신 재잘재잘 웃어 대며 "그래, 우리에게 이런 게 남으니까 팬잖아~!"라면서 신나는 모습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믿음과 책임과 기쁨의 감정이 뒤섞인다. 듣직 성실 사장 성민이(4학년), 힘세고 친절환 회계기운이(4학년), 배려 깊은 챙김들이 판매 진주(4학

년). 비주얼간지 홍보 지형이(5학년), 완전 귀요미 시설관리 익준이(5학년). 독수리 5형제 마냥 제과제빵 작업장과 나를 지켜 주고 있는 요놈의 간디 다섯 형제가 참 이쁘다.

1년 동안 매번 좋은 날만 있을 순 없겠지만 건강하고, 이왕이면 맛있는 먹거리를 친구들과 나누고자 서로 열심히 신나게 배우고 놀기를. 또 빵아 미너 열심히 하느라, 나연, 선(모두 3학년).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는 만남이지만 통통 튀는 매력으로 수업 시간을 즐겁게 해 주는 세 친구들에게도 고맙다.

5. 어릴 적부터 나에게 희미하게나마 닿아 있던 끈을 찾아내고 또 단단하게 잡아당기는 과정 속에서의 경험과 배움을 나눌 수 있는 지금. 어떤 이들에게도 그 언젠가 희미하게나마 기억될 수 있는 무언가가 되기를 바라본다. 정말 쉽이 없이 달려왔다. 쉽이 없으면 지치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내 주변, 소중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차릴 여유도 갖지 못하게 된다. 이제는 마음만은 쉬면서, 옆을 보면서 사랑하는 이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한다.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곳 덕산에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여러 학생들과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나. 타닥타닥 장작불의 훈훈함이 거실을 감싸고 바알간 선홍빛 숯만큼 선명한 빛의 기억들이, 시간들이 추억이란 이름으로 새겨지고, 이것이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지금을 떠올리며 버티게 할 힘이 되어 줄 것이

란 걸 믿는다.

달달한 케이크와 구수한 빵 내음이 좋다.

내가 만든 케이크와 빵을 좋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음이 좋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 여자다.

어때, 윤주 쌤 정말 대단하지? 글을 읽으니깐 달콤한 빵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앗, 잠시만. (쿵쿵) 어디서 진짜로 빵 냄새가 나는데?! 냄새를 따라가 보면...

아, 저기 진주(4학년)가 있구나! 진주는 빵아저씨(이하 빵아)도 하고 제빵 작업장도 한대. 가서 제빵 작업장에 대해 물어 봐야겠다!

Q. 진주야, 제빵 작업장 재미있어?

진주: 응, 재미있어! 확실히 빵아에서 하는 야매 제빵과는 다른 것 같아. (퍼센트로 말하면 몇 퍼센트 정도 만족하는 것 같아?)음.....한 90%?

Q. 10% 아쉬운 점은 뭐야?

진주: 아무래도 공간이 많이 좁아서 불편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 제빵실이 좁기도 하고, 제빵 작업장 사람이 여유 공간에 비해 많기도 하고.

Q. 아, 빵아 중등부 언니들이 기술지도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때? 달라진 것 같아?

진주: 나는 중등부가 아니라 그 수업을 못 들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되게 유익하대. 작업장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배우는 것 같더라.

Q. 이전에 빵아에서 하던 제빵이랑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이 오셔서 하는 제빵이랑 많이 달라?

진주: 응, 전문성에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 일단 빵

아는 완전 야매란 말이야? 계량도 대충 맞추고, 그냥 되는 대로 굽고. 그리고 빵아에서는 주로 제과를 많이 해. 그런데 일단 제빵 작업장에서는 제빵 위주로 하고, 전문성이 정말 느껴져. 계량할 때도 2g 이상 차이 나면 안 되고, 도구 다루는 법도 하나하나 제대로 배우고, 시간도 딱 맞추고, 전체 과정도 되게 꼼꼼하게 기록해. 그리고 평가도 확실히 달라. 먹을 때의 질감같이 세세한 조건을 세워 두고 평가를 해. 그러다 보니 분위기도 다를 수밖에 없고. 작업장은 정말 진지한 분위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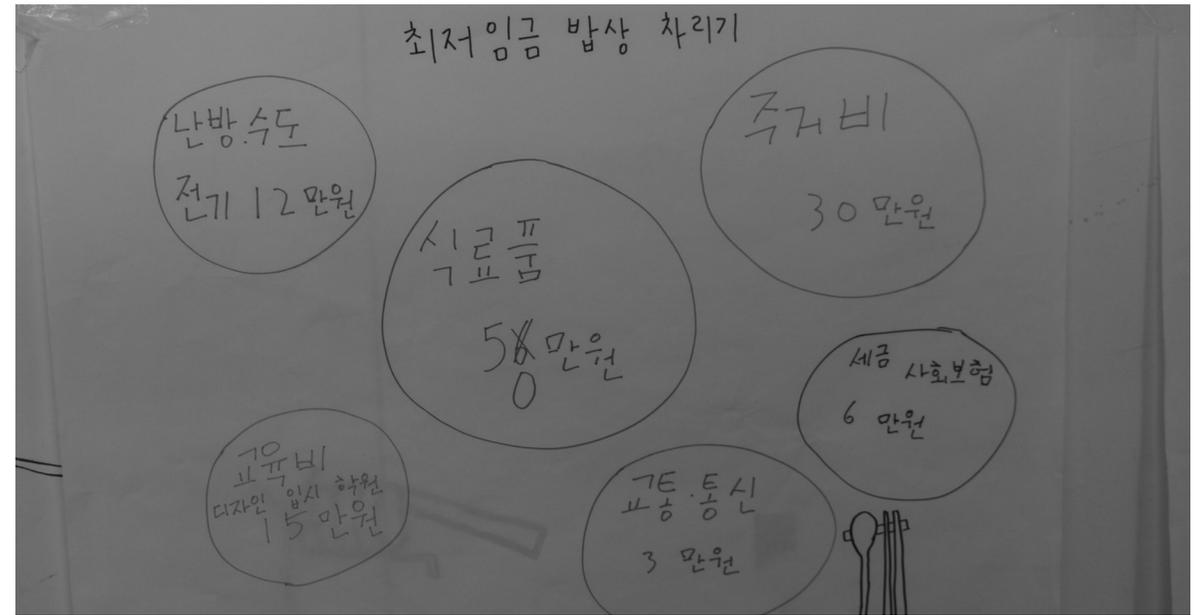
Q. 제빵 작업장에서 더 배우고 싶은 거 있어?

진주: 나는 제과 분야도 더 배워 보고 싶어. 일단 제빵보다 더 많이 쓰이기도 하고, 제빵을 하려면 발효기를 사야 하잖아? 그런데 집에서 하거나 배우기엔 살짝 부담되는 면이 있어. 그래서 제과를 좀 더 배워 보고 싶어.

우와, 정말 재미있겠다! 나도 윤주 쌤이랑 제빵 작업장이 만든 케이크 먹어 보고 싶다. 응? 뭐라고? 제빵 작업장 케이크를 2주 전에 주문하면 살 수 있다고? 그럼 나 지금 주문하러 가야겠다~!

세상을 향해 들어가는 힘! 노동인권

최유경 기자: 이번에 새로 오신 철수 쌤은 노동인권운동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직접 계셨던 분인데, 역시 들어오시자마자 ‘노동인권’ 수업을 개설하셨어. 역시 현장에서 일하셨던 전문가는 뭐가 달라도 다른지 학생들의 수업평도 좋던걸? 그럼 철수 쌤이 학교 오시기 전의 경험을 그대로 녹여 낸 글 한 편 읽어 볼래?



새로운 시작, 그래도 간다

김철수(교사)

나는

아이들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

그 다리를 건너 세상을 향해

서슴없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게 하고 싶다

나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을 만한 세상 서럽지 않은 세상 만들진 못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먼저 세상을 산 선배가 후배 앞에서.

그래도 내 청춘 바쳐 싸웠다

잘못된 세상 한 번 바꿔 보려고.

커다란 벽 앞에서 굴하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싸움도 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주인 노릇 좀

하자 애타게 부르짖기도 했다

그래서 얼마나 바꿨을까

세상의 변화와 진보에 나는 얼마만큼의 밑돌이 되었을까...

물론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를 만드는 일, 우리 속에 대안을 만드는 일,

그 일을 언제까지 미뤄둘 수만은 없는 일이다

적지 않은 나이에 겁도 없이

다시, 또, 새로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 교사가 되고자 한 이유다.

세상 앞에서 겁먹고 뒷걸음치지 않고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로 도망치지 않고

무기력하게 늘어져 비관하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마주하고

겁 없이 싸가지 없이 뛰어드는

우리 아이들을 만들고 싶다

그런 미래를 만들고 싶다



간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체였는데, 주간-야간 2교대 근무에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급에 1주일에 60~70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느라 모두 위장병을 앓을 정도였다. 어느 날 회사가 우리 동료들을 해고시키려 하는데 반발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회사의 온갖 탄압을 견디다 3개월 만에 노조부위원장이었다던 나와 노조위원장이 해고되고, 노동조합은 회사 쪽 어용세력의 수중으로 넘어가 버렸다. 물론 그 노동조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해산해 버렸다. 그 뒤에도 나는 4~5군데 금속사업장에 취직하여 노동자로 살았다. 그리고 그 뒤 8~9년 동안은 민주노총이라는 노동단체에서 상근 활동가로 일했다. 노동상담소를 설립하여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되찾는 활동도 하였고, 부당하고 복지판결을 하는 노동법원성격의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를 변호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활동도 하였다. 20년 가까이 나의 젊은 시절은 노동자로, 또 노동운동가로 살았다. 그러다 7년 전쯤 대구에서 노동운동을 모두 접고, 경북 고령으로 귀농했다. 흙냄새 맡으며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싶었고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쌀농사도 6년 넘게 짓고 감자, 고구마 농사에 딸기 잼도 만들어 팔았고 내 손으로 직접 집도 지으며 농촌생활에 적응해 갔다. 그런데 무너져 가는 농촌 현실과 희망 잃은 농민들 속에서 나는 또 농민회 사무국장을 맡아 농민운동에 뛰어들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이어 농민운동까지 그야말로 잘못된 세상을 바꾸는 운동에 평생을 살아온 셈이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서 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선생님! 전에 일하던 편의점 사장이 싸가지 없다고

빵을 때렸어요. 그럼, 그것도 노동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선생님! 오토바이 치킨 배달하다 사고 났는데… 그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덩치가 마치 건달 같은 고3 남학생들이 나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작년 대구지역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진행한 '노동인권수업'에서였다. 노동인권수업이라 해 봐야 고작 2시간이 불과하고 대부분 처음 듣는 것들이라 무관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여기저기 질문이 쏟아졌다. 나는 그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꿈을 꾸었다. 그 학생들이 세상에서, “만물의 가치를 창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꿈! 우리 집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노동자가 되어야 하고, 공부도 못해서 입시 경쟁에서 실패했으므로 할 수 없이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피동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다운 선택으로 노동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래서 나는 교사가 되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이를 둔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내가 원하는 가치로운 삶을 선택한 것이다. 비록 좋은 세상은 아니지만 기성세대가 일궈 온 세상을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잘 넘겨주고 싶다. 세상과 학교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이것이 따뜻한 남쪽에서만 살아온 내가 춥다고 소문난 제천간디학교로 찾아온 가장 큰 이유다. 반갑다~ 간디!

잘 읽었어?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정말 연륜이 묻어나는 것 같아. 그냥 어려워 보이지만 했던 '노동인권'도 재밌어 보이지 않아? 나도 수업 들어 보러 갈래~

글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이예슬 기자: 기숙사 남자 사감 쌤인 수진 쌤이 진행하시는 수업도 하나 있어. 평소에도 시적인 감각이 풍부하신 수진 쌤은 실제 문학 잡지에도 등단하신 시인이셔. 예전에는 논술 강사 같은 것도 하셨대! 작년의 '시 창작 기초'에 이어, 이번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글쓰기를 줄인 '핑어글' 수업을 새롭게 개설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수업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수진 쌤께 직접 여쭙 봤는데, 한번 들어 볼래?

Q. 핑어글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궁금해요!

A. 유래는 딱히 없고, 그냥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글쓰기'를 줄인 말이야. 처음엔 '쉽게 쉽게 글쓰기'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방학 동안 서울로 글쓰기 강의를 들으러 다니면서 서사적 글쓰기도 재미있겠다 싶어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그리고 작년 2학기 '시 창작 기초 수업'을 개설했을 때 예상외로 정원수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서 조금은 겁나는 이름으로, 인원을 조정하겠다는 일념하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이 수업의 타이틀로 정했지.

아, 그리고 학기 초에 수강 신청을 했던 3학년 남자 친구들은 핑어글과 다르게 '핑글'이란 이름으로 분반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 핑글은 '굉장한 글쓰기'의 줄임말인데, 사실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이란 타이틀도 숨겨져 있어.

Q. 정말 재미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핑어글에서는 어떤 글을 쓰고 있나요?

A. 핑어글에서는 다양한 상상과 창작의 방법을 활용한 서사적 글쓰기를 하고 있어. 등장인물이 있고, 등

비겁하게 싸움을 포기한 것 아니냐
 무책임하게 네 할 일을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
 아직 세상살이 서투르고 설익은 네가 누굴 가르치겠다는 것이냐
 사실 뭐 이런 질문에 자신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간다
 그래도 간다

2014년 12월 어느 날에

나는 80년대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한 386세대다. 군대를 다녀온 후 노동현장과 노동단체에서 일했다. 1993년에 처음으로 노동현장에 들어갔는데 포항제철 용광로에 들어가는 부품을 가공하는 금속사업장이었다. 사장이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라 '욕쟁이'로 불렸는데 당시 노동현장은 욕설과 폭력이 난무했다. 11개월 만에 새끼손가락을 다치는 산업재해를 입고 회사를 쫓겨 나오다시피 나왔다. 두 번째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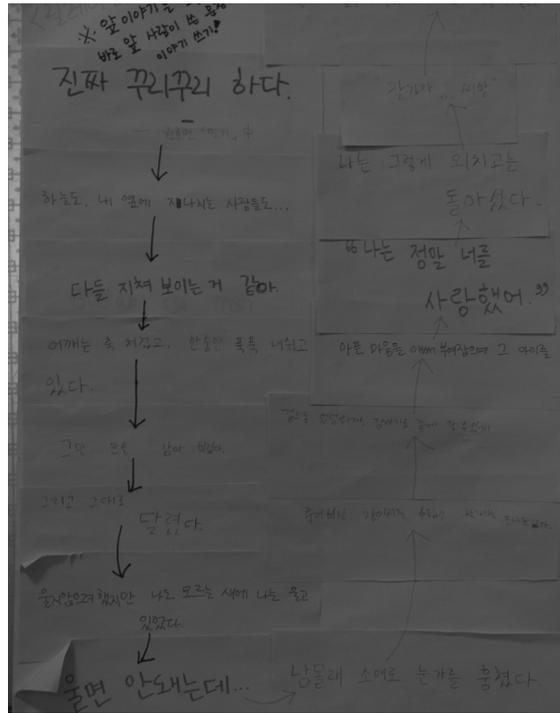
장인물을 중심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지나가는, 혹은 등장인물이 그 하나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아니면 그 하나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우리가 흔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주인공 시점’, ‘관찰자 시점’이라고 말하는 관점에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거야. 말이 조금 어렵지? 하지만 교과발표회에 나오는 작품을 본다면 지금 한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글쓰기 방식은 예전엔 문학 장르에 속하지도 못했지만 어느덧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고 있는, ‘한 페이지 단편소설’이란 장르를 선택했어. ‘한 페이지 단편소설’은 A4 용지 한 장 혹은 두 장 분량 정도의 짧은 글을 말해. 핑어글 수업은 이 방식으로 자신의 서사를 담아내는 글쓰기를 하려고 하고.

아, 그리고 핑글반 친구들도 기말에 핑어글반 친구들 처럼 한 페이지 단편소설의 형식으로 작품을 낼 계획인데, 핑글반은 아마 판타지 소설을 쓸 거야. 세계관 설정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갖고 글쓰기 수업을 하려고 해.

Q.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다양한 문학기법이 있겠지만, 핑어글에서는 관찰과 묘사에 집중하려고 해. 일단 관찰에 대한 수업을 이론과 실습으로 2주 정도 했고, 묘사에 대한 이론 수업도 한 주 했어. 앞으로는 묘사의 방법으로 관찰하는 글쓰기 수업을 한 번 가질 예정이고, 그 이후에 서사적 글쓰기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작품구성을 할 거야. 그리고 글쓰기 수업이니만큼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습이 정말 중요하잖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 말고도 숙제로 예습 차원의 글쓰기를 하고 있어. 숙제의 비중이 꽤 클 뿐더러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숙제를 3번 해 오지 않으면 하루 결석한 걸로 간주하고 있지.



Q. 핑어글 수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A. 나의 이야기를, 내가 아닌 다른 인물로, 나의 시점에서, 나의 관점으로, 관찰하고 묘사한 글쓰기! 단, 작가의 마인드로!

Q. 핑어글이 여타의 글쓰기 수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작가의 마인드로 ‘있어 보이는 글’을 쓰고자 한다는 게 가장 다른 것 같아. 다른 글쓰기 수업들은 내 고민 지점을 담아내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나의 이야기를 담아낸 글쓰기 수업들이었다면 핑어글은 그야말로 독자를 생각하며, 작가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작가처럼 작품을 써 보는 게 목표야.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독자’가 내 작품을 보았을 때, ‘음, 잘 썼는데?’라고 생각할 만큼의 작품!...을 쓰자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잘 나와 줄지는 잘 모르겠어.(웃음) 그래도 기대하는 몇몇 친구들이 있어.

Q. 혹시 수업 중에 뜻밖의 재능을 가진 학생을 발견 하셨나요?

A. 다들 뛰어나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뜻밖의 발견이라 말할 수 있는 친구는 효연(5학년)이야. 서사적 글쓰기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힘이거든? 세세한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관찰하는 눈이 바로 그 힘의 원동력이 되고, 거기에 상상력까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저번에 각자 사진 한 장씩을 보고 그 사진 속 이야기의 밖에 어떤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를 상상해서 관찰하는 글쓰기를 숙제로 내준 적이 있었는데, 비록 수업에서 배운, 관찰의 방법으로 글쓰기를 제대로 응용한 글은 아니었지만,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정말 세세하게 관찰해서 글을 썼더라고. 특히나 ‘김원미’라는 등장인물을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정말 놀랐어. 다들 관찰자의 입장에서 쓰더라도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설정하지는 못했는데, 효연이는 등장인물의 이름과 외모 그리고 성격 같은 걸 상상해 내서 자기 글 속에 담아줬거든. 수업 시간에 칭찬해 주진 못했지만, 정말 뜻밖의 발견이었어.

이 쪽에서 효연 언니 글을 한 번 보고 가야겠지? 수진 쌤께서 효연 언니 글과 함께 추천해 주신 다연 언니(5학년)의 글도 받아왔어. 그럼, 같이 읽어볼까?

권효연 글

하늘에 비행기 하나가 떠 있다. 그 비행기의 몸체에는 ‘jeju air’라는 항공 이름이 써 있다. 비행기 몸체의 가운데에는 두 개의 이등변삼각형 모양의 날개가 양 옆으로 하나씩 수평을 이루며 붙어 있다. 또 몸체의 끝에는 직각삼각형이 양옆으로 두 개, 위로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삼각형들이 모두 주황색이다.

태양은 서쪽에 있다. 태양 오른쪽에는 구름이 다섯 개 있는데, 그중 한 구름만 태양을 가리는 크기이고 다른 구름들은 모두 태양보다 작다. 태양의 왼쪽에는 구름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남긴 비행기 구름이 왼쪽 하늘을 직선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하늘은 세룰리안 블루이다.

그 하늘 밑으로 보이는 건물 중 가장 높은 건물은 동화제약의 건물이다. 창문 하나에 다섯 개를 넘는 먼지가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동화제약 건물의 창문은 총 549개이다. 옥상에는 정수조가 있다. 옥상의 바닥은 초록색이다. 옥상의 난간은 쇠로 만들어져 있다. 잡는 곳은 동그란 파이프 모양이고, 옆으로 쭉 뻗어 있다. 그 밑을 받치는 것도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동그란 파이프인데, 옆으로 뉘어진 파이프의 밑을 직각으로 받치고 있다. 잡는 곳과 받치는 곳은 용접을 하여 붙였다.

동화제약 건물의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는 층수만 말하자면 32층이고,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옥상까지 포함한다면 33층이다. 그중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 6층까지이고, 나머지 건물은 임대를 해 다른 점포들이 들어서 있다. 7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는 한 층당 7개의 점포만 있다. 7층에는 다른 층들과 다르게 8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데, 그것은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을 빌려 들어온 원미 네일아트 숍 때문이다. 원미 네일아트 숍의 주인은 김원미라는 45살 여성인데, 지금 사용하는 그녀의 이름은 32살 때 개명한 것이다. 그 네일아트 숍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두 명 있고, 두 명 다 남자다.

원미 네일아트 숍이 있는 동화제약 건물의 앞에는 숲이 있다. 그중 가장 오래된 나무는 음나무이다. 그 음나무는 원미 네일아트 숍의 주인인 김원미 씨의 아

버지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나무이다. 숲에는 소나무가 반이고, 쉽게 볼 수 있는 칠죽에서부터, 김원미 씨의 할아버지도 이름을 모르는 나무가 숲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숲 앞엔 잔디가 깔려 있는 공원이 있다. 그 잔디들은 모두 2센티미터를 넘지 않는다. 언제나 정성들여 관리하는 공원은 담배꽂초 하나도 발견하기 힘들다. 숲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곳에는 벤치가 하나 놓여 있는데, 갈색 페인트로 칠해 놓은 것이 다섯 군데나 칠이 벗겨져 있다.

안다연 글

강아지 앞에는 계단과 작은 신발장이 있다. 계단 4번째 칸에는 항아리와 강아지와 다갈색 봉투가 있었다. 그런 봉투 옆에는 작은 코스모스가 피어 있다. 직사각형인 다갈색 봉투에는 초록색으로 '맛있는 사료'라고 적혀 있다. 다갈색 봉투는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의 얼굴처럼 여기저기 구겨져 있다. 다갈색 봉투 아래에는 강아지가 작은 발로 낙서를 했는지 발자국이 찍혀 있다. 그런 강아지와 같이 작은 새들도 발자국을 찍었는지 새 발자국도 찍혀 있다. 다갈색 봉투는 윗부분이 뜯어져 있다. 마치 칼로 신중하게 자른 듯 반듯하게 잘려 있다.

다갈색 봉투 앞에는 검은 바지의 남색 라운드 반팔을 입은 한 여자가 서 있다. 여자는 어깨까지 오는 검은 생머리를 하고 있다. 여자는 다갈색 봉투 안에 손을 넣고 있었다. 여자의 팔꿈치는 봉투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다갈색 봉투에서 손을 꺼냈다. 여자의 손에는 은색 그릇이 들려 있었다. 은색 그릇 안에는 사료가 가득했다. 여자는 그릇을 들곤 강아지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더니 신발장 위에 있는 3개의 바

가지에다 사료를 똑같이 나눠 담기 시작했다. 바가지는 분홍, 파랑, 초록색이었다.

사료를 다 나눠 준 은색 그릇을 신발장 위에 올려둔 여자는 다른 은색 그릇을 들고 수돗가로 걸어갔다. 여자는 초록색 호스가 달린 수돗가에 쪼그려 앉아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자는 은색 그릇에 물을 담았다. 여자는 물이 든 은색 그릇을 들고는 다시 신발장 앞으로 걸어갔다. 여자는 사료가 있는 바가지를 분홍, 파랑, 초록색 순서로 내려 뒀다. 그런 뒤 물이 가득 찬 은색 그릇을 강아지들 앞에 뒀다.

그런 여자를 보며 강아지들은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작가처럼 글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 다가오는데? 정말 책으로 출판해도 될 것 같아. 다들 정말 대단하다~ 아 참, 핑글반, 핑어글반 친구들이 보여 주는 멋진 작품들은 기말 교과발표회 때 볼 수 있으니까 기대해도 좋대! 난 벌써부터 기대되는걸?

미지의 단어, 업사이클링

최유경 기자: 업사이클링, 들어 본 적은 있어? 학교의 활력소 아름 쌤이 개설하신 수업인데, 특하면 수업은 안 하고 분리 수거장에만 들락날락거리길래 나도 도대체 뭘 하는지 되게 궁금했어. 작년 2학기 집중식 수업 때도 개설했었다고 들었는데... 수업에 들어가 보니 엄청 발달한 분위기였어. 여학생만 네 명밖에 없어서 그런지 신나는 노래까지 틀어 놓고 손보다 입이 더 많이 움직이는 느낌이었지. 그럼, 아름 쌤한테 무슨 수업인지 여쭙 보려 가자!



Q. 업사이클링 자체가 사람들에게겐 낯선 단어인데요, 업사이클링이 뭔가요?

A. 업사이클링은 업(Up)과 리사이클(Recycle)을 합친 단어예요. 리사이클은 재활용이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에서 업, 즉 한 단계 올라간 게 업사이클링이에요. 버려진 것에 새로운 가치를 넣어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유리병으로 컵을 만든다거나 풍경을 만드는 것같이.

Q. 업사이클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복수 전공으로 했었어요. 그때 만들기 수업이 많았었는데, 한 교수님께서 재활용품을 만드는 수업을 하셨어요. 그때 이런 걸 가지고도 수업을 할 수 있구나 싶었죠. 또 제가 워낙 만들기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버려지는 건 많잖아요? 그게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넣어서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 내면 쓰레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하고 잘 버리지 않지 않

을까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Q. 수업에선 대체적으로 무슨 재료를 활용하나요?

A. 이번에는 이면지와 버리는 상자들, 병뚜껑, 유리병과 현수막, 자잘하게 버려지는 천 등을 사용하고 있어요.

Q. 현재 수업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A. 이면지로 엽서 만들기, 병뚜껑으로 뱃지, 자석, 냄비받침 만들기, 폐현수막으로 동전 지갑 만들기를 했고, 오늘은 상자를 잘라서 스탠드를 만들고 있어요.

Q. 수업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나요?

A. 만들기 수업이다 보니 똑같은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지루해하거나 지칠 때가 있죠.

Q. 앞으로 학생들과 더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A. 지금은 작은 소품들만 만들고 있어요. 동전 지갑이라든지 컵이라든지. 그런데 나중에는 진짜 큰 벤치나 테이블 같은 큰 가구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때, 아름 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지? 나도 듣고 있는데 얼마나 재미있다고! 내 말은 못 믿겠다고? 그럼, 나랑 같이 수업 듣는 규리 언니한테 가서 물어 보자.

Q. 업사이클링 수업을 듣기 전에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에 대해 알거나 관심이 있었어요?

규리: 알았어. 작년 2학기 집중식 수업 때 했었거든.



간디in 때문에 후원을 하신다고?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의 학부모, 진천군청의 사회복지사, 어느 하나 제천간디학교와의 연결고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후원하시는 이유를 여쭙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간디in에 글을 쓰는 보람을 느낄 수 있던 정미영 님과의 인터뷰, 만나 보러 가실까요?

Q. 집중식 수업 때랑 지금 정식 수업으로 들어온 업사이클링이랑 다른 점이 뭐예요?

규리: 집중식 수업 때는 좀 어려운 게 많았어. 선생님이 시범으로 집중식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힘든 건 빼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더 넣어 주신 것 같아.

Q. 업사이클링 수업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규리: 만드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작년 집중식 수업이 재밌었기 때문에 다시 듣게 된 것 같아.

Q. 업사이클링 수업에 재밌는 점과 반대로 힘든 점이 있다면?

규리: 만드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 업사이클링이다 보니까 재활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종이 같은 것도 다 오려야 되고 바느질도 일일이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런데 다 만들고 완성품을 보는 뿌듯함이 되게 크지.

Q. 앞으로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건 있어요?

규리: 초를 만들어 보고 싶어, 향이랑 색깔도 내가 넣어서.

역시 작년 2학기 집중식 수업의 인기에 힘입어 정식 수업으로 개강한 만큼 재미있어 보이더라고! 쓰레기도 재활용하고, 예쁜 물건도 만들고! 일석이조의 '개이득'이니 꼭 한 번 들어 봐~

어때요, 재미있으셨나요? 새로 생긴 수업들을 보고 오니까 벌써부터 기말 교과발표회가 기대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 다양한 수업들이 생겨나니까 더 활기찬 느낌도 들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수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 드려요.

A.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딸,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이고,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간디학교 새내기 후원자예요.

Q.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A. 저는 공무원으로, 인근의 작은 군에서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어요. 2012년에 생긴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곳이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주로 법적 제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민간자원과 연결을 시켜 줌으로써 자립할 수 있게 관리와 지원을 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Q.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A.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기 전에는 소득 재산만 보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들에게만 약간의 지원을 해 드렸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정말 최저생계에 맞춘 비용이에요. 저도 당장 그 돈으로 살라고 하면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2012년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면서 최저생계소득 이상이라도

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리고 굳이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까지 찾아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지원을 받는 분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 편이에요. 제가 교장 선생님 편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말인데,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고 도와 드리는 것)을 마을 안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민간 사회복지사랑 공무원 사회복지사가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A. 지금은 그래도 많이 거리가 좁혀진 편인데, 원래 공무원 사회복지사는 소득재산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 급여를 주는 게 주요 업무였어요. 지금도 민간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사람에게 민간 자원을 많이 연계해 줄 수 있어서 공감대 형성이 좀 더 쉬운데, 공무원 사회복지사들은 법을 따라 일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죠. 그래도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사'라는 분들이 계시요.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도움도 많이 드리고 해요.

Q. 후원자님은 어떻게 민간에서 공공 사회복지사로 전향하게 되셨나요?

A. 부끄러운데, 이것도 아버지의 권유로 그렇게 됐어요.(웃음) 민간 복지관에서 일할 때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아버지가 집이 있는 청주 쪽으로 와서 공무원 일을 해 보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그냥 공무원으로 전향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창의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민간보다는 공공 쪽이 더 맞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Q. 사회복지사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분이 있나요?

A. 여러 분이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할머니 두 분이 먼저 떠올라요. 한 분은 제가 가면 손부터 내미세요. 제가 뭘 가져왔는지 보려고. 어려운 분들 드리라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 가져다 드리니까 ‘왔어?’ 하면서 손부터 내미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손자 두 명을 혼자 키우시는데 가면 뭐라도 못 주셔서 안달이세요. 그 두 분을 생활을 봤을 때 누가 더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기억에 남네요.

아, 그리고 기업 같은 곳에서 저희 쪽에 도움을 많이 주세요. 옛그제는 사무실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저희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밖에 못하지만, 적은 금액이더라도 꾸준히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도 저희에게는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나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기꺼이 하시니까 참 대단해 보였어요.

Q. 어려우신 분들을 항상 보고 지내시는 것 때문에 심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A. 어려움은 딱히 없는데, 나라에서 도움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걸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내 자식들에게는 미안해서 요구하지 못하지만, 나라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신 분들. 좀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에게 화가 났었어요. 왜 자기가 직접 키운 자식들에게는 요구하지 못하고 생판 남인 나에게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할까 싶어서.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분들이 더 안쓰러워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Q.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라는 일을 하면서 보람이나 기쁨을 느끼실 때가 있나요?

A. 많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도와주었을 때 그런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

지만, 얘기만 들어줘도 고맙게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물질적인 도움이 아닌, 공감만으로도 힘을 얻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있다 보면 이 일을 하기 잘했다고 생각을 하죠.

Q.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따뜻한 직업이잖아요. 자녀분들은 어머니의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A. 사실 아이들이 엄마의 직업에서 크게 느끼는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

Q. 세월호 사건도 1주년이 다가오고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들이 많은데, 사회복지사로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A. 세월호 사건은 일단 어른들의 잘못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이해하죠. 근데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간디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은 저처럼 안 살았으면 하는 것 때문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대학을 사회복지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그렇게 갔고, 공무원도 안정적인이라고 해서 그냥 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깊게 해 본 적도 없이 무난한 길로 살아왔죠. 그냥 내가 사는 거고 일하고 월급 받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저처럼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른 채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간디학교에 가서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뭘지 찾아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Q. 간디학교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A. 몇 년 전에 같이 일하던 직원 분이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때는 대안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학교 부적응아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해서, 왜 대안학교에 보내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인의 아들이 산청간디학교를 졸업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좋은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졸업을 하면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배울 수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Q.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으신데, 혹시 일반교육을 받고 있나요?

A. 네, 그냥 동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Q.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간디학교나 다른 대안학교에 보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A. 아이가 가고 싶어 한다면 보낼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안학교에 대해 안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대안학교는 잘 몰라요. 좀 더 찾아보고 좀 더 좋은 학교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간디학교로 보낼 생각이 크죠.

Q. 간디학교 소식지 <간디N>을 받아보기 위해 후원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 때문에 소식지를 받아 보고 싶으셨나요?

A. 간디학교에 대해 알게 되면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같은 게 궁금해졌는데, 인터넷 같은 길로는 정보를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소식지에는 좀 더 많은 정보가 들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받아 보고 싶어졌어요.

Q. 받아 보신 소식지는 만족스러우셨나요?

A. 기대보다 훨씬 좋았어요. 처음엔 소식지를 어른

들이 만드는 줄 알았는데, 받아 보니까 100% 학생들이 만든 거여서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자세하게 될 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잘 담겨 있고, 제가 알고 싶은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소식을 많이 받아봤지만 친필로 편지를 써서 동봉해 주시는 곳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Q.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으신가요?

A. 저는 대안학교 법제화 시위에 관한 기사가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그것도 선생님들이 시켜서 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졸업생들 인터뷰했던 기사도 좋았어요. 정해진 진로가 있건 없건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려고 하는 게 참 좋아 보였어요. 당장 설 거다 하는 것조차도 계획이니까.

Q. 혹시 소식지에서 좀 더 수정하거나 추가되었으면 하는 점은 뭐가 있나요?

A.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은 없고,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도? 저뿐만 아니라 아이를 간디에 보낼 생각이 있다면 누구나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선 잘 지낼 것 같은데, 사회에 나왔을 때도 그렇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사회에 나와서 인가학교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겪는 어려움 같은 건 없는지 같은 게 소식지에 실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Q. 아직 간디학교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셨는데, 계획은 있으세요?

A. 되게 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 요청

이 들어왔을 때도 가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번에 학사일정 보니까 5월 말쯤에 학교 방문의 날이 있더라고요. 그때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어요.

Q. 후원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간디의 모습은 어떤가요?

A. 책임감이 있는 자유분방함이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한 번도 가 본 적도 없고 실제 재학생을 만난 것도 오늘이 처음이라서 소식지 등의 매체를 통해 혼자 상상해 낸 모습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소식지를 보면서 무작정 자유만 있는 게 아니어서 더 잘 지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어린 학생들이지만 자기가 한 모든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간디학교에, 그리고 일상다반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A. 학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내용이 알찬 소식지를 만들기가 어른들도 힘든데, 같이 회의하고 아이디어 내고 글을 쓴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소식들을 잘 전해 주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커피에 맛있는 식사까지 얻어먹고 왔으니 참 얽치없는 나들이였습니다. 기자들의 끊임없는 수다에 지치셨더라도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혹 학교를 방문하시게 된다면 꼭 기사를 찾아 주세요! ♡



어떻게 받들어라!

부제: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은 영화에서만...

좌의정 김민석, 우의정 김예림의
끈끈한 러브스토리

따까리들 : 훌륭한 결왕,
사진기자 안효원, 삽화기자 이가원

왕- 음...히치하이킹을 직접 해 보니 선대 왕들께서 히치하이킹을 자제시킨 이유를 알 것 같군. 우선 안전 문제가 심각하구나. 인도 없는 도로에서 차들은 빨리 지나가고, 도로로 나오는 학생들 때문에 운전자들도 불편하고, 자칫하면 충돌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지. 그뿐만 아니라 차를 얻어타더라도 납치 같은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면 연락할 방법이 없는 어린 학생들은 난감하겠군.

신하1- 전하, 조사해 보니 수많은 납치, 살해 사건과 충돌 사고 등 수많은 안전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히치하이킹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왕- 어이쿠, 정말 무섭구나. 간디 학당 학생들은 다행히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군.

신하1-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하는 차에 타거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트럭을 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이 히치하이킹문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85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왕- 예헐, 많은 간디 학당 학생들이 히치하이킹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구나. 역시 안전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학교의 이미지 손상 등 여러 문제가 생기는군.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히치하이킹을 한다니, 참으로 안타깝도다. 히치하이킹을 이용하는 이유 중 '다른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이 나왔으니 백성들이 이용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수단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소.

학생들이 이용하는 히치하이킹의 문제를 공감하게 된 왕은 서둘러 궁궐로 가서 총애하는 신하인 우의정(김예림 기자)과 좌의정(김민석 기자)을 불렀어요. 두 신하에게 덕산으로 가는 교통 수단이 없는 학생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교통 수단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지요. 과연 두 신하는 교통 수단을 찾아와 왕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간디 학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질문1. 간디 학당의 히치하이킹문화의 문제점에 해당된다 고 생각하시는 것에 모두 답해 주세요.

안전하지 않다. (납치, 차 사고, 사고 발생시 대처가 어렵다 등등)	77%
운전자의 불편이 생긴다.	30%
사고 시 보험처리가 안 된다.	23%
히치하이킹시 차량이 잡히는 시간이 불규칙 하다.	21%
학교의 이미지가 손상된다.	13%

질문2.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히치하이킹을 이용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에 모두 답해 주세요.

다른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59%
히치하이킹이 편해서.	43%
돈이 없어서.	40%
버스 시간표를 몰라서.	3%
모두가 다 히치하이킹을 해서.	15%
학교에서 금지를 안 해서 .	5%

전하, 안녕하시옵니까? 좌의정 김민석이옵니다. 듣자 하니 요즘 전하께서 백성들의 위험한 히치하이킹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벌떡 일어나시고 음식도 통 못 드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걱정하시는 전하가 있기에 간디 왕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이런 전하를 두고 제 어찌 편하게 나랏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신 전하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밤낮 구분 없이 히치하이킹을 대신할 안전한 이동 수단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무릎을 탁 칠 만한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전거이옵니다. 학생들이 위험한 히치하이킹을 그만두고 자전거를 타고 덕산을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간디 학당에서부터 덕산까지 자전거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착한자전거 후원 요청을 위한 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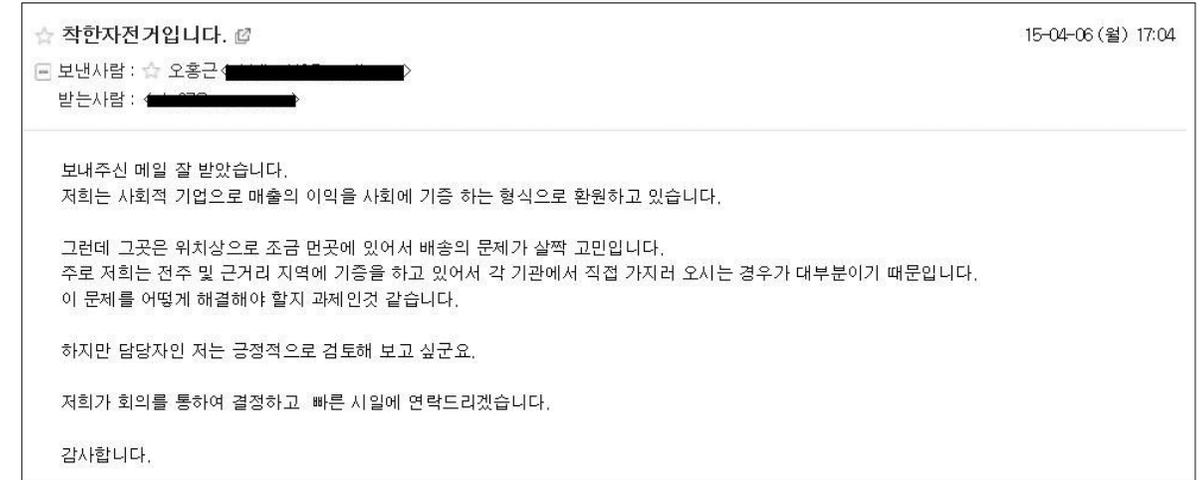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천간디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2학년 이한결, 고등학교 1학년 김민석, 고등학교 2학년 김예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후원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그 흔한 편의점 하나 없는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주말마다 덕산면 소재지로 외출을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약 5km의 거리를 걸어가거나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걸어가기에 너무 멀고, 버스는 차편이 별로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남의 차를 얻어 타는 '히치하이킹'을 이용해 덕산면 소재지로 나갑니다. 히치하이킹은 미성년자이고, 연락 수단이 없는 (학교에서 핸드폰을 금지합니다.) 학생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납치, 교통 사고 등의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해지기 위해선 자전거가 필요하고 학생들 또한 자전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공교육이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국가 및 도교육청의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학교는 대안교육에 뜻이 있는 분들의 후원과 학부모님들의 학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교 재정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한자전거'에 후원을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착한자전거에서 자전거를 몇 대라도 후원해 주신다면, 학생들은 더 이상 위험한 히치하이킹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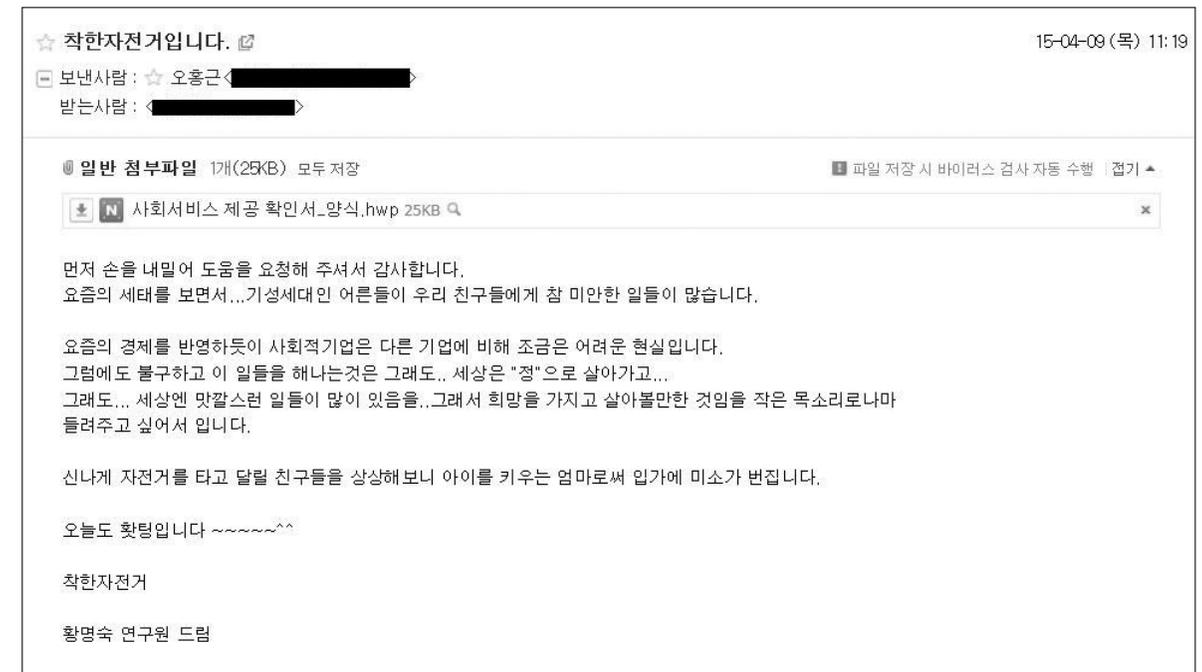
저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신 착한자전거에는 사회적 공헌과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실현 불가능했던 꿈을 이뤄 준 착한자전거에게 큰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미래에 사회의 일원이 될 학생들의 위험한 히치하이킹을 막아 준 착한자전거는 크나큰 사회적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치하이킹은 단 한 번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제든 몇 번이든 일어날 수 있는 커다란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더욱더 해결 방법인 자전거가 절실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착한 자전거 아십니까? 착한자전거라는 이름 그대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을 심어 주십시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찰을 보내고 6시간이 지난 후 착한자전거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의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전하, 사실 무모하게 맨땅에 헤딩하듯이 부탁해 본 것인데,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저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전화로 상의한 후 후원 확정 서찰을 받았습니다.



마음씨 좋은 착한자전거 덕분에 간디 학당은 자전거 10대를 후원받았습니다. 안 될 것 같았던,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자전거 후원이 착한자전거의 착한 마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착한자전거로 인해 간디 학당 학생들은 위험한 히치하이킹에서 한 발짝 멀어지고, 안전하게 덕산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즐겁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덕산에 나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하, 부족한 좌의정의 글을 읽어 주셔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리고 착한자전거 관계자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전하, 지랄발광(知刺發光)²⁾ 하십니다!

전하, 소신 우의정 전하의 수척한 용안³⁾을 보며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전하께서 히치하이킹 같은 세상에 있어선 안 되는 위험한 일을 겪으셨다니! 그 때문에 어환⁴⁾이 생기신 건 아닌가, 매화⁵⁾는 잘 보셨나 하는 걱정애 남행북주(南行北走)⁶⁾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차칭, 타칭 일세지웅(一世之雄)⁷⁾이 아닙니까! 소신, 전하가 내려 주시는 명이라면 반드시 마부위침(磨斧爲針)⁸⁾하고 맙니다. 직접 찢고, 듣고, 맛보고, 즐기며 백성들의 무분별한 히치하이킹엔 국가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제격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율배반(二律背反)⁹⁾이었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겨우 4대뿐이었고, 이는 위험한 히치하이킹이 아닌 버스를 타라는 간디 학당의 말과는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디 학당 학생들 역시 노답(叟答)¹⁰⁾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온 간디 학당의 실태와 제가 이룬 성과에 대해 더 자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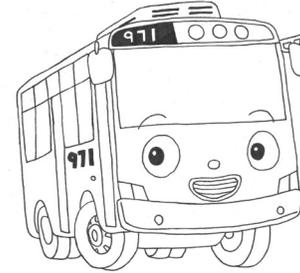


전하! 이걸이 '타'요! 이용입니다!

돈=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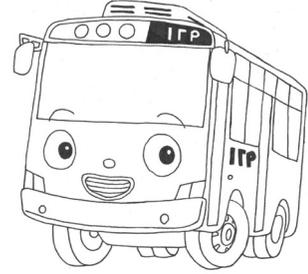
[간디학당 앞 버스에 관한 보고서]

-971번 제천 시내버스-



요금표

	현금	교통카드
일반	1,300	1,200
청소년	1,000	900
어린이	650	550



-덕산면~도기리

(간디 학당 마을이 조그마해 덕산면에서 도기리까지 들어가서 왕복한 후 제천 시내로 나감. 3시간 주행)

-하루 4대 운행

덕산-도기/오전 7:35, 10:00, 오후 1:30, 4:40
학교 앞-덕산/오전 8:00, 10:25, 오후 1:55, 5:05

<간디 학당 버스 이용 및 실태 조사에 관한 분석>

가. 정말 간디 학당 마을(덕산면)의 교통 수단은 발달하지 않았는가?

간디 학당 마을이 있는 덕산면은 100가구 남짓한 크지 않은 마을이다. 따라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지마을'로 지정되어 있고, 다른 주변 마을에 비해 버스가 많이 오는 편이라고 한다(제천 시내버스 영업팀 전화 인터뷰 인용). 버스가 적은 마을은 한두 대 정도 들어가기도 하고 아예 다니지 않는 마을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버스가 하루 4대뿐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노선'이다.

나. 버스를 이용하는 덕산면 마을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

실제 매일 버스를 이용하시는 마을 주민 분들 중 약 25명을 짧게 인터뷰해 보았다. 질문 내용은 현재 버스 운행 시간과 횟수가 적절하다고 느끼는지, 만일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바뀌길 바라는지 등이었다. 대다수의 마을 주민 분들은 현재 운행 횟수와 시간대가 적절하다고 답해 주셨으며, '이 마을에 버스가 이만큼 다니는 건 기적이다', '더 늘어나면 좋긴 하겠다'고 답해 주신 분들이 계셨다. 평소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과는 다르게 매일 버스를 이용하며 버스 시간대에 생활 패턴을 맞추고 계셨기 때문이다.

다. 간디 학당 학생들의 오래된 문화, 습관

버스를 직접 타 보고 마을 주민 분들을 인터뷰하며 근본적인 문제는 버스 횟수나 시간이 아닌 학생들의 습관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다. 학교가 제천에 세워지던 2002년, 제천으로 오기 이전인 산청에서도 '히치하이킹'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다. 만일 처음부터 히치하이킹이 아닌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했다면 간디 학당 학생들의 생활 패턴도 버스에 맞춰져 문제 없이 생활했을 것이다. "히치하이킹처럼 편한 게 있는데, 왜 돈 내고 버스를 타?"

2) 혼란스러움을 지혜로 바로잡아 인생을 빛나게 한다는 의미(따라서 전하가 혼란스러움을 바로잡아 훌륭하시다는 의미). '신단 메이커'라는 웹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네 글자로 표현해 준다. 여기에 쓰인 이름은 기자 이름인 -김예림-

3) 임금의 얼굴

4) 임금의 병

5) 임금의 대변(똥)

6) 남행북주(南行北走) : 제대로 되는 일도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님

7) 일세지웅(一世之雄) : 그 시대(時代)에 대적(對敵)할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程度)로 뛰어난 인물(人物)을 이르는 말

8) 마부위침(磨斧爲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努力)과 끈기 있는 인내(忍耐)로 성공(成功)하고야 만다는 뜻

9) 이율배반(二律背反) : '두 명제가 서로 모순됨'이라는 뜻. 비유적으로 쓰이면 '가'를 주장하면서 '가'와 상반된 행동을 할 때 쓰인다.

10) 노답(叟答) : 원래 뜻은 'No답'으로 답이 없다는 뜻, 재미로 한자를 막 붙임.

가 아니라 “버스처럼 편한 게 있는데, 왜 위험하게 히치하이킹을 해?” 하는 오늘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늘어나야 합니다!

소신이 느낀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 학당 마을의 버스는 늘어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히치하이킹은 아주 위험합니다. 따라서 버스가 충분하다고 해도 학생들의 히치하이킹을 막기 위해서는 버스를 늘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고를 방지함에 있어 방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학생들은 학교 생활 내내 아슬아슬하고 편하게 누려 온 히치하이킹 문화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버스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타 보지 않은 학생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한 번이라도 버스를 제대로 타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버스가 늘어났을 때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뚜렷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버스가 적절한 시간대에 생긴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는 전체 학생 중 71.7%가 버스를 이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디 학당 학생들의 성원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전하, 전심전력(全心全力)¹¹⁾하면 못 할일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눈물겨운 간디 학당 학생들의 사연에 제가 직접 관아(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부디 전하께서도 이를 위해 힘써 주시길 간곡히 청하옵니다.

.....

.....

.....

...나홀 뒤.

“게시오~”

“뉘십니까?”

“관아에서 나왔소, 나홀 전 관아에 민원을 넣은 우의정 맞소?”

“예, 그렇습니다만.”

“현재 양주동 노선(971번) 버스의 추가 운영을 간디학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동 수요 및 교통 여건 등을 반영하여 검토해 보았소.(제천시 민원 게시판 답변 중) 하지만 여러 가지를 따져 보았을 때 버스 운영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아의 답변이오.”

“아, 그렇습니까...”

아쉽지만 버스 운영을 늘려 달라는 민원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우의정 김예림은 간디 학당 학생들의 소망을 이뤄 주지 못한 것이 가슴 아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꽃이 활짝 핀 길을 걸었다. 옆을 보니 학생들이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덕산을 향해 가고 있었다. 히치하이킹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버스 운행 시간에 생활 패턴을 맞추고 히치하이킹에 대한 문제 의식을 높이며 차차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따뜻한 봄날, 일부 학생들은 히치하이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덕산에 나가기 시작했다.

“아, 비록 내가 아니더라도 결국 전하의 어명을 받들었구나! 히치하이킹으로 인해 근심하던 전하와 백성들이 두 발 뻗고 잘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게 두 신하는 어명을 받들어 학생들의 안전한 교통 수단을 찾아보았습니다.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덕산을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간디 학당 학생들은 감사의 표시로 두 신하에게 간디인 상을 주었습니다. 왕도 두 신하에게 어여쁘고 잘생긴 배필감을 상으로 내려 주었고, 두 신하는 좋은 배필을 만나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살았답니다. 끝! 🍀

초리틴¹²⁾ 글

“안녕하세요, 저희는 덕산면 선고1리 간디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저희의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중략)

따라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히치하이킹이 아닌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덕산에 나갈까 고민하다가 가장 현실적인 버스이용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버스 운행 횟수와 시간대는 저희가 버스를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외출하는 학생들을 위한 주말 특별 운행 시내버스(구체적으로는 기존 시간에서 정오 12:00, 오후 3:00에 버스가 추가)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주말특별 버스 운행으로 인해 학생들이 위험한 히치하이킹을 하지 않고 안전한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동시에 덜게 될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미래 사회에 일원이 될 학생들을 위해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전심전력(全心全力) :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기울임

12) 초리틴다 ‘요약하다(말이나 글의 요점을 잡아서 간추리다)’의 옛말.



개미와 베짚이

- 두 괴생물체 미스터리

충청북도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 자리한 제천간디학교를 둘러싸고 괴이한 사건이 벌어진 때는 개나리 활짝 피는 봄이었다. 일상다반사에서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비밀리에 수사, 해결하여 사건조사 보고서를 미공개 X-파일로 남겨 두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만료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파일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공식적으로 공개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간디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우리학교에 이상한 괴생물체가
 있어요. 뭔지 밝혀주세요!!!
 저기발 살려주세요!!!!

2015년 3월 9일 한가한 오후, 잠잠하던 일상다반사에 사건 제보가 들어왔다. 일상다반사에서는 수사 팀, 분석 팀으로 나누어 재빠르게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외부로 새어나가면 전 세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먼저 수사 팀은 정체 모를 생물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마침 사건 제보자가 취재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와 사건 제보자 최모 양을 인터뷰해보았다.



최모양, 15세/괴생물체 목격자

제가 그 괴생물체를 처음 본건 3일전 지락 컨테이너 옆 평상이었어요. 진짜 보는 순간 소름끼쳐서 바로 토를 했어요. 좀 안정되고 보니까 사라져 버린거예요

우리는 정체 모를 괴생물체를 처음 목격한 지락 컨테이너 옆 평상 근처에서 48시간 동안 잠복 수사를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목격자를 찾으러 나섰다. 그때, 또 다른 목격자가 있다는 소식을 입수해 인터뷰해 보았다.



김모군, 14세/괴생물체 목격자

어제 양호실에서 자고있었는데, 갑자기 뭔가가 기어올라서 보니까 괴생물체 였어요!!!! 그래서 바로 뛰쳐나왔어요.

수사 팀에서 목격자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순간, 지금 생태화장실 근처에 괴생물체가 기어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바로 학교 밖으로 달려나가 뒤를 쫓았지만, 아쉽게도 괴생물체가 낌새를 눈치채고 재빨리 도망간 탓에 멀리서 찍은 사진 몇 장밖에 얻지 못했다.



분석 팀에서 사진을 분석하던 중, 생태화장실 근처 풀숲에 숨어 있던 또 다른 괴생물체를 발견, 즉시 보고하여 수사 팀에게 알렸다. 수사 팀은 이후 생태화장실에 현장을 보호하며 지문 채취, DNA 수사, CCTV 확인 등, 보다 세밀한 수사 끝에 두 괴생물체를 구분하기 위해 코드네임과 코드번호를 붙였다.



코드네임: 개미
코드번호: 0001227



코드네임: 베짱이
코드번호: 000513

분석 팀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분석해 코드네임 개미와 베짱이의 생활 패턴을 알아냈다. 코드네임 개미는 목격될 때마다 늘 방대한 양의 서류를 들고 어딘가 급하게 뛰어나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하는 일이 많고 바쁜 일정을 살고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코드네임 베짱이는 목격된 장소가 한정적이고(지락 컨테이너 왼쪽 평상), 목격된 횟수가 많으며, 목격될 때마다 태평하게 기타를 치고 있다는 증언을 통해 한가한 생활 속에서 여유로운 날들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두 괴생물체는 마치 동화 '개미와 베짱이'를 보는 것과 같이 서로 대비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일상다반사는 기나긴 회의 끝에, 이번 사건명을 '개미와 베짱이'로 결정하였다.

이후 수사 팀에서 몇 번의 수사를 거쳐 일상다반사 본부에 보고하였다.



코드네임 개미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1교시	주여	작업장	전산실 장학생	필리핀 준비(수업)	사진Ⅲ (수업)
2교시	직조(수업)	작업장	도서위원	필리핀 준비(수업)	작업장 경제교육 (수업)
점심	전산실 장학생 회의 여자축구	개인프로젝트(수업)	도서위원 회의	일상다반사 회의	
3교시	작업장	서예(수업)	작업장		
4교시	작업장	서예(수업)	작업장	가족회의	
목학	일상다반사 회의	어깨동무(동아리) 필리핀 준비	기지개(동아리)		
취침	기지개(동아리) 필리핀 준비	라디오 회의	어깨동무 회의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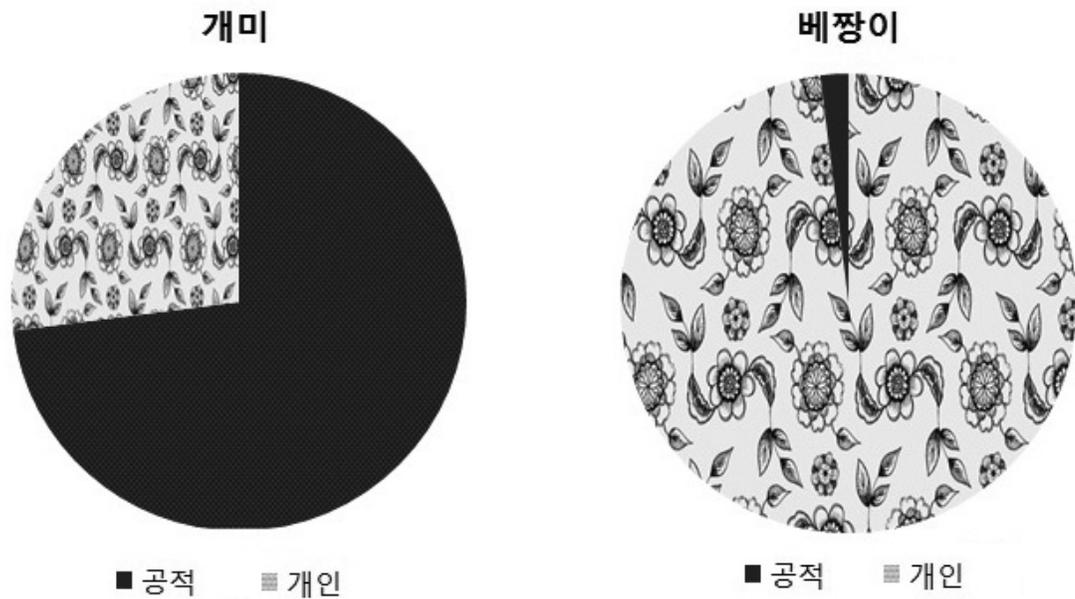
코드네임 베짱이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1교시	주여		주제 프로젝트 (수업)		
2교시	도예(수업)		주제 프로젝트 (수업)	옷만들기 기초 (수업)	학급활동
점심					동아리 연합회 회의
3교시					
4교시			학급회의	가족회의	
목학					
취침					

수사 팀은 개미와 베짚이를 뒤따라 생활관으로 올라가 보았다. 생활관 내에서도 개미는 여전히 바쁘고, 베짚이는 한가했다. 수사 팀은 개미와 베짚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밀착취재하였다. 실제로 개미를 취재한 기자의 증언으로는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회의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는 얘기가 대다수였다. 반대로 베짚이를 취재한 기자의 경우 베짚이가 하는 일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분석 결과, 개미의 기숙사 생활은 공적인 일(회의, 숙제 등) 73%, 개인적인 일(수다, 먹기 등) 27%였고, 베짚이의 기숙사 생활은 공적인 일 2%, 개인적인 일 98%였다.



이렇게 개미와 베짚이를 추적하고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직접 개미와 베짚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개미와 베짚이는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지만, 몇 번의 설득 끝에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3/31 화요일

시간	개미	베짚이
9:00	청소 시작	청소 시작
9:30	청소 끝/ 개인 짐 정리	놀이
9:40	기지개(동아리) 회의	
10:00	취침 당번 소등 돌려 잠깐 나온 후 다시 회의	야식 먹으러 만남의 광장 나옴
10:25	회의 끝/ 야식 먹으러 감	야식 먹으며 수다
10:40	필리핀 준비 회의	
10:45	취침 당번 취침 돌려 잠깐 나옴	취침
11:00	다시 회의	
11:30	필리핀 준비 회의 끝 / 씻으러 감	
11:40	책 읽음	
12:00	취침	

4/2 목요일

시간	개미	베짚이
9:00	청소 시작	청소 시작
9:40	청소	놀이
9:50		
10:00	취침 당번 소등 돌아봄 / 샤워	
10:25	개인 짐 정리	동아리 연합회 회의
10:30		
10:45	취침 당번 취침 돌아봄	놀이
10:50	수업 숙제	
11:15	필리핀 준비	
12:15	수업 숙제	취침
1:15	취침	

-수사 팀: 자기소개 한 마디.

-개미: 제천간디학교 12학년 현재 4학년 개미 이에 슬입니다. 성별은 여자예요.

-베짱이: 베짱이 3학년 신비아입니다.

-수사 팀: 괴생물체로 간디인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듯하다. 느낌이 어떤가.

-베짱이: 내가 한심해(웃음). 너무 한가해. 어떻게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지?

-개미: 좋은 거야.

-베짱이: 학교에서 되게 바쁘게 살고 싶은데.

-개미: 사실 화제의 인물 찍는 거 보고 한번 쬐은 해 보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은 해봤는데, 진짜 될 줄은 몰랐고, 신기하네.

-수사 팀: ‘개미’와 ‘베짱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미: 사실 나는 개미 별로였는데(웃음). 개미와 베짱이에 나온 개미 별로 안 좋아했어. 웬지 내가 본 이야기에서는 베짱이가 성공하고 개미는 열심히 일만 하는 노동자여서 개미가 너무 불쌍했어. 그래서 나 자신이 너무 불쌍해. 지금 학교에서 노동착취당하고 있는 거야. 임금도 못 받는데.

-베짱이: 나 베짱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집에 ‘개미와 베짱이’ 책이 세 권이나 있어.

-수사 팀: 실제로 자신이 한가하거나 바쁘다고 생각하나.

-베짱이: 한가해. 많이 한가해. 매우 한가해. 매우 매우 매우 한가해.

-개미: 사실 나는 생각만큼 많이 바쁘지 않은데. 그냥 수업이 짝 차 있을 뿐이야. 왜냐하면 화요일은 3시간

짜리 수업 두 개가 오전, 오후 짝 차 있어서 화요일이 짝 찬 거고, 수요일 오전은 다 도서위원이랑 전산실 관리란 말이야. 오후는 작업장이고. 그래서 난 딱 그렇게 바쁘지 않아. 그렇게 비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힘든 일은 아니야. 근데 할 일은 많지. 지금 일상 다반사는 개편해서 정신없고, 라디오는 자리를 잡느라 이번 학기에 좀 바쁘지 않을까 싶어. 잡일이 많아. 잡일꾼이야. 그리고 사진 수업 숙제 진짜 너무 많아.

-수사 팀: 베짱이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들었는데.

-베짱이: 있습니다! 동아리 들어가려 했는데, 내년에 4학년이라 늑어서 아무도 안 받아 줄 것 같아. 빨간 비디오 들어가고 싶어. 어깨동무도.

-수사 팀: 개미는 일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덜어 낼 생각은 없나?

-개미: 덜어 낼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4시간짜리 수업이 두 개 있고, 특히 필리핀¹⁾이 시간을 많이 차지해. 필리핀 모임만 한 서너 개 하나까. 2학기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수사 팀: 베짱이는 시간표를 보니까 많이 비어 있던데, 빈 공장 시간에는 뭐 하나?

-베짱이: 전산실 가고, 카페 가고, 놀아. 호화로운 생활. 먹고 자고 놀고 싸고. 카페에 많이 갑니다. 나를 중심으로 우리 반 여자들이 카페의 실질적 물주야. 오늘이랑 어제만 만 원 썼어. VIP인 듯. 어제 피자 먹고 오늘도 피자 먹고. 난 돼지야.

-수사 팀: 개미는 일이 많아서 힘들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힘이 되는 활력소는?

-개미: 아, 이게 뭐야. 오글거려.(웃음) 음... 엑소랑 안재현. 그리고 노래? 밥, 간식도.

-수사 팀: 개미는 학교 일에 많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개미: 원래부터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벌여놓다 보니까 수습이 안 되네. 1학년 때는 꽤 한가했는데. 근데 2학년이 되니깐 진짜 바빠졌어. 악몽 같은 날이 시작되었지. 2학년 2학기 때 처음 동아리 회장을 했던 말이야. 그래서 내가 1년 반 동안이나 그 자리를 맡았지.

-수사 팀: 베짱이는 학교 일에 참여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

-베짱이: 동아리 면접에 떨어졌어. 1학년 때 6개를 지원했는데, 1개 빼고 다 떨어졌어. 그게 시작이었어. 그때부터 상처받아서 안 했어. 뭔가 내가 잘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없는 거 같아.

-수사 팀: 요즘 근황은 어떤가.

-베짱이: 잠이 부족해.

-개미: 맞아, 잠이 부족해. 근데 너는 매일 자잖아.

-베짱이: 졸려. 진짜 졸려. 많이 졸려. 많이 자도 졸려. 많이 자면 잘수록 졸리대.

-개미: 어쩐지 남다른 발육.(웃음)

-수사 팀: 곧 벚꽃이 휘날리는 아름다운 봄이 올 텐데, 연애 계획이 있을 것 같다.

-개미: 그딴 거 없어. 연애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요. 아이유도 ‘봄 사랑 벚꽃 말고’ 라고 했어.

-베짱이: 잠이 오네.

-개미: 아니,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지. 썸남도 없어.

연애 계획 따위 없다. 워커 홀릭이라 포장해 줘.

-수사 팀: 앞으로의 계획은?

-개미: 지금 벌여 놓은 일이라도 수습하자.

-베짱이: 더 베짱이처럼 살래. 페이스북 도공승 페이지 관리도 해야지. 게시물 도달 수 10,000개 찍었어. 만날 글 올리고 있는데.

개미와 베짱이의 Play List

바쁜 일상에 지쳤을 때, 혹은 지루한 일상에 활력소가 필요할 때 듣는 개미와 베짱이의 Play List!

-신날 때 듣는 노래

베짱이: Billionaire-Brouno Mars

개미: Call Me Baby-엑소

-잘 때 듣는 노래

베짱이: 외침-디오

개미: 너 사용법-에디 킴

-우울할 때 듣는 노래

베짱이: Sunday morning-Maroon 5

개미: Baby Don't Cry, My Answer-엑소

이곳 제천간디학교에서 괴생물체의 습격이 일어난 지도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간디학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젠 개미와 베짱이가 훌리고 간 페로몬만이 간디학교에 고이 잠들어 있다.☹

1) 4학년 움직이는 학교 일정한 필리핀 해외이동학습. 공연, 모금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2) 베짱이 3학년 신비아가 관리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그룹 EXO 멤버 D.O의 팬페이지로, 좋아요 2만 300개가 넘었다.







가을이

안녕하세요~저는 제천간디학교 교사 김정환 선생님이 키우고 있는 가을이라고 해요! 집이 학교 바로 옆이라 학교에 자주 놀러오고요. 아,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고, 간디인들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자랍니다!! 까르르 까르르 애교손! 애교발! 제가 간디학교 운동장에 자주 놀러가면서 본 것들을 일기로 썼는데용, 일상다반사에서 제 일기를 강제로 훑쳐가서 간디인의 짧은 소식으로 소식지에 넣으려고 하네용. 나뻐!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주의 가을이 가사의 이름 다소 불편할 수 있음

좋아요 팔로잉 메시지

가을이님이 새로운 사진 2장을 추가했습니다.
1시간 · 🌐

2015년 3월 2일 월요일

메휴...가을이의 수난시대가 시작하는구나. 조용하던 학교가 개학하기 시작하면서 학생놈들이 내 운동장을 뺏어가는구나...맨날 축구하느라 내 뽕밭자리를 뺏어가는구나...내가 나타나면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구나...망할놈들. 이제는...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덤벼!!!!!!!!!!!! ☆세일러문★!!!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 2명이 좋아합니다.

댓글을 입력하세요...
글을 게시하려면 Enter 키를 누르세요.

가을이님이 새로운 사진 2장을 추가했습니다.
1시간 · 🌐

2015년 3월 5일 목요일

하핫!! 이 세일러문의 힘이 통했나보군!! 하늘이 나를 배려해서 수업을 시작하였당!! 애들이 수업때때 바빠서 학교에만 쳐박혀있고 운동장으로 안나오겠지?? 그럼 이제 운동장에서 뽕 쌀 수 있다규!! 역시 세일러문, 넌 뭔가 달라....훗. 운동장을 또 악당(학생)들한테 뺏길지도 모르니까 빨리 영역표시를 해야겠군. 뽕을 싸야겠어!!!! 운동장은 내 것이다!!!

★운동장 탈환 기념 괘변 ☆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 2명이 좋아합니다.

댓글을 입력하세요...
글을 게시하려면 Enter 키를 누르세요.

 가을이
2시간 · 🌐

2015년 3월 18일 수요일

쿵.....쿵쿵.....내 춤실력을 동아리 한마당을 통해 보여주지.....독혼...독혼...
내가 속해있는 춤동아리 미지정의 이름이 불리면...내 심장은 독혼...독혼☆
내 춤을 본 년 나에게 중.독...하.....난 이 음악을 느끼고 있다...이 음악에 빠져
져들고 있다...이 비트에 내 모든 몸과 영혼을 맡겼다.

춤과 비트만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난 음악에 미.쳤.다..
쿵...이게 바로 지금의 나다☆★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 미한슬님 외 10명이 좋아합니다.

관련성 높은 댓글 ▾

 댓글을 입력하세요...



글을 게시하려면 Enter 키를 누르세요.

 가을이
1시간 · 🌐

2015년 3월 27일 금요일

바로...바로 지금이다.
무(無)에 도달한 기분,
깨달음의 시간...
악심을 품고,
순수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자.
비폭력을 실천하자...
제천간디학교 비폭력 서약식에서 순수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자....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 2명이 좋아합니다.



댓글을 입력하세요...



글을 게시하려면 Enter 키를 누르세요.



가을이님이 새로운 사진 3장을 추가했습니다.

39분 · 🌐

2015년 4월 11일 토요일

올해 입학식 컨셉은 조선시대라고 하오. 참 즐겁지 않소? 허허허 1학년들의 표정이 참 좋아보이는구려. 여봐라, 개똥아! 어여쁜 1학년 신입생들에게 엿을 나눠주도록 하여라. (예, 전하!!!)

이번 1학년들을 보니 벌써부터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구려. 짐이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 하오니 참 좋은 것 같소. 참! 이번 입학식에서는 훈장님들이 작정하고 축하공연을 했다고 들었소. 짐도 보고싶었지만 상소문이 올라와 처리하고 오느라 보지 못하였소. 참 아쉽군 그래.

짐의 말이 길어진 것 같소. 이만 말을 줄일테니 1학년 신입생들은 알아서 잘들 사시오. 짐은 이제 다시 간디인에게 괴롭힘 당하는 강아지의 신세로 돌아가겠소. 빠이 짜이찌엔.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 2명이 좋아합니다.



댓글을 입력하세요...



글을 게시하려면 Enter 키를 누르세요.



가을이님이 새로운 사진 2장을 추가했습니다.

31분 · 🌐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배가 더 기쁠까봐 끝까지
숫아 모르는 쪽을 누르고 있으려
옷장에 매달려서도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믿으며
나 혼자 버리고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갈등을 물리쳤을, 공포를 견디었을
바보같이 착한 생명들아! 이학년들아!
그대들 앞에 이런 머쳐구니 없음을 가능케 한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세월은
침묵도, 반성도 부끄러운
죄다

쏟아져 들어오는 짙 짙한 물을 밀어냈을
가녀린 손가락들
나는 괜찮다고 바깥세상을 안심시켜 주던
가족들 목소리가 여운으로 남은
핸드폰을 다급히 품고
물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러보았을
공기방출 글씨
엄마
아빠
사랑해!

아, 이 공기, 숨쉬기도 미안한 사철

-함민복, <숨 쉬기도 미안한 사철>



Small movement, Great mirade



가을이

1시간 · 수정됨 ·

2015년 4월 24일 금요일

내 사랑 달링에게...

Darling, 4.19구 마라톤 어땠어? 난 좋았어. 너의 입술이 나에게 4.19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고, 너의 눈빛이 나에게 4.19를 가르쳐주었고, 우리는 4.19 퀴즈를 1등으로 통과했지. 난 어떨지 몰라도 어려웠던 퀴즈풀기마저 나에게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추억이었어.

난 알게되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4.19가 우리 사랑을 이어줬다는 것을...난 너를 통해 4.19를 알았고, 사랑을 알았어. 난 너의 맑고 영롱한 눈빛과 매혹적인 입술에 빠져들었어...

Oh 달링 넘지 말아요

두 입술 사이 거린 아직까진 5-십센추!...★

-아이유, 입술사이 (50cm) 中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5명이 좋아합니다.



댓글을 입력하세요...



글을 게시하려면 Enter 키를 누르세요.



김담 사진기자(1학년)

안녕하세요 일상다반사 신입기자 김담입니다! 처음이라 너무 멍멍멍 있었던 것 같아ㅋㅋ 앞으로 좋은 사진 찍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 삽화기자(2학년)

사실 시간은 많았었는데 또 미루고 미뤄버렸네요. 게다가 스케줄러는 집에 두고 와서 또 그리고... 그래도 결국 완성은 했네요ㅋㅋ 다음부터는 잘하겠다는 말 너무 많이 써 먹었지만 이번엔 깊은 곳에서 우려러 나오게! 다음부터는 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1부!!!! 수고했어~~



이한결 기자(2학년)

안녕하세요. 이한결 기자입니다. 드디어 2015년 첫 간디인이 나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ㅎ



최문형 사진기자(2학년)

안녕하세요~신입기자 최문형입니다. 이번 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기자 후기를 쓰네요~ 다음 호부터 정말 열심히 할게요^^



최유경 기자(2학년)

죄송합니다...ㅠㅠㅠ 마감 지켜야겠다는 다짐이 무색하도록 마감을 2주 가깝게 어겼습니다ㅠㅠ 못한 1부 때문에 고생한 편집장 채은 언니, 인터뷰해 준 규리 언니, 시은 언니,아름 쌤,종명 쌤, 좋은 글 써 주신 철수쌤, 한 쪽지에 6개의 수업을 안겨 주신 정환 쌤, 같이 1부 하느라 고생한 예술 언니, 영경이, 성현 언니, 개편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한 일상다반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솔 기자(3학년)

이번 호는 개편을 했습니다!!! (짜싹싹) 새로운 아이디어 짜는 데만 시간을 몽땅 써 버렸어요ㅋㅋㅋ 효원 언니!! 화보 잘 찍어 줘 진짜 고맙고(♥) 채은 언니도 도와줘서 고마워!! 협조해 준 개미와 베패랑 가을이도 고맙ㅋㅋㅋ 일상다반사 다들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호가 심히 걱정되지만 일단 볼호는 마무리 했으니 발뺌고 잘 가야!!! 여름호에서 만나요! 뽕!♥



박성현 사진기자(3학년)

제일 먼저 사진 기자 대빵 효원 언니!! 이것저것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고맙고, 1부 기자들 사진을 개편으로 하고 다녀서 미안해요ㅋㅋ 룩리 언니 사진 보내줘서 고마워!!ㅋㅋㅋ 이제 반성의 시간...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ㅎㅎ 저는 저 나름대로 마감을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가정학습을 갔다오니 마무리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ㅠㅠ 난 도대체 뭘 한 건지...



안효원 사진기자(4학년)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일상다반사에 붙어 있는 안효원 보스입니다! 일상다반사가 개편을 했어요!!!! 이번 호는 정말 빈말이 아니라 참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말 힘들었고 많이 지쳐갔던 것 같아요. 2부를 같이 한 김민석, 김예림, 이한결 기자! 삽화 이가원 기자! 정말 멋졌고 고생했어ㅠㅠ 다음 호에는 제가 필리핀을 가 있을 거라 보스가 아닙니다! 다음 호의 사진기자 보스는 바로 박성현(여) 사진기자죠! 새로 들어온 사진기자들과 아주 신나는 생활을 해 보세요 하하하하 수고해ㅠㅠ 정말 모두모두 사랑하고 수고했어요♥♥♥♥♥뽕♥



이예슬 기자(4학년)

이번 호는 일상다반사에게도, 같은 팀 친구들에게도 민폐를 너무 많이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하기만 합니다. 제 역량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호를 좋은 경험으로 삼아 다음 호에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기사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석 기자(4학년)

이번 기사는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3주 가까이 매일 밤마다 회의하고 발로 뛰며 기사를 썼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런지 성과도 있었고 진짜 기자 일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준 2부 팀 정말 고생했습니다. 우리 이제 만나지 마요.ㅋㅋㅋ 또 착한자전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편 덕분에 간만에 열심히 한 우리 일상다반사 기자들 모두 고생했습니다. 특히 편집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는 필리핀을 가서 다음 여름 호는 쉬어요. 예~ 아쉽지만 가을 호 때 만나요~



김예림 기자(5학년)

일상다반사 말년에 개편해서 정말 열심히 했네요...! 제 모든 걸 쏟아 부은 기사인 동시에 재미있게 했습니다. 편집장과 다른 팀 친구들, 같이 고생한 2부 팀 친구들과 수고했어요!!! 2부는 꼭꼭꼭 회식도 가고 자전거도 타요ㅎㅎㅎ 4학년 친구들과 필리핀 잘 다녀오고 남은 기자들은 다음 호도 고생합시다...!! 파이팅@



손채은 편집장(5학년)

이번 호 처음으로 편집장을 맡게 된 손채은입니다. 너무 늦어진 봄 호이긴 해도 다들 개편하느라 오랜 회의도 잘 버텨 주고 열심히 활동해 준 것 같아 고맙게 느껴져요. 개편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3부 작업을 함께했었는데 많이 못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 해 낸 이한슬! 수고했어. 여름 호도 잘 작업하자, 애들아~^^



이가원 삽화기자(5학년)

이번 호는 제가 들어온 이후로 역대 최고치 삽화량을 찍었습니다!! 무려 일곱 개!!! 게다가 개편을 해서인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감이 점점 늘어졌습니다. 이번 호가 너무 힘들고 개편도 이젠 지긋지긋합니다.ㅠㅠ 그래도 이번 호를 발판으로 다음 호부터는 더욱 탄탄한 간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하고 좋습니다. 같이 고생했던 영경이랑 만날 회의하느라 얼굴 마주하는 것조차 질려 버린 2부 멤버들, 그리고 일상다반사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나파우끼우 여행학교 공생의 마을살이는?

옛 란나왕국의 수도이자 태국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치앙마이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지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둬으로써 태국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배움과 성장의 여행입니다. 아이들이 접해본 적 없는 사람, 마을, 그리고 공생의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하는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 호텔이 아닌, 태국인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합니다
- 관광소가 아닌 태국인의 공연을 함께 즐깁니다
- 코끼리를 타지 않고, 친구가 됩니다
- 렌트카가 아닌, 현지의 교통수단(생태우와 기차)을 이용합니다
- 관광이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여행을 합니다
- 여행의 모든 과정을 태국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나파우끼우 여행학교 공정여행 포인트<

1. 국가에서 인증하는 **국외여행인솔자·체험학습지도** 자격이 있는 **공정여행 코디네이터**가 인솔하는 프로그램
2. 국제기구와 지방정부에서 공인한 **안전한 홈스테이 프로그램**
3. 여행 전과 여행 후가 확실히 관리되는 여행: 부모와 함께하는 **여행 전 오리엔테이션·여행 후 국내캠프**
4. 여행만으로 만들어지는 **<여행수기책>, <여행사진책>**, 그리고 공익활동을 통해 발급 받는 **<안전행정부 봉사활동시간>**

태국어를 몰라 더듬거리는 3살짜리 아기 매와 야이, 따, 잠보에게 사랑 받으면서 생각했다. 우리엄마, 아빠가 정말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살았던 거구나. - 태국 공정여행 참가자 안수빈 학생 수기 중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만세로 요청하시면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주)공정함에 감동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대표전화 042) 335-3600 | 주소 301-803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51 (대흥동 178-2, 3층)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정번호 제 2012-061호 | 관광업 등록번호 제 185호-대전광역시 중구(국외), 제 233호-대전광역시 중구(국내) 인허가보증보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해외 제 06-15-0109호 홈페이지 www.fairtravelkorea.com | 블로그 fairtravelkorea.tistory.com | 웹카페 cafe.naver.com/ricetrace





공감만세 부탄 공정여행 얼리버드 파격할인



공감만세 부탄 공정여행 <행복을 찾아서, 은둔의 왕국 부탄>은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답하는 나라 부탄에서, 히말라야 트래킹에 초점이 맞추어진 부탄 여행이 아니라 부탄이라는 나라와 사람을 중심에 두어서 '행복'에 대한 부탄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배움과 성장의 여행입니다.

일정 9월 24일(목) ~ 10월 4일(일) / 8박 11일

'9월 중' 460만원 → '5월 중' 399만원

함께하는 사람 여행교육팀 팀장 김태형

KBS 특파원리포트 <가난한 왕국> 부탄, 행복의 이유) 동행 코디네이터

현) 공감만세 여행교육팀 팀장

전) 호주 Sails in the Desert Hotel Staff 근무
적십자 응급 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일반과정 수료

행복을 찾아서, 은둔의 왕국 부탄

부탄에 와서 알게 되었다.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 부탄 여행참가자 우연한 필연님의 후기



부탄행복위원회

부탄행복정책의 심장을 만나다



포브지카 계곡

자연과의 공존을 택한
포브지카의 공생의 지혜



푸나카중

부탄의 정적이면서
깊이 있는 세계관의 단초



탁상사원

천상으로 가는 길



홈스테이 & 체험

파로마을 홈스테이
부탄의 국기(國伎) 활쏘기 체험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만세로 요청하시면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주)공정함에 감동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대표전화 042) 335-3600 | 주소 301-803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51 (대흥동 178-2, 3층)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정번호 제 2012-061호 | 관광업 등록번호 제 185호-대전광역시 중구(국외), 제 233호-대전광역시 중구(국내)
인허가보증보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해외 제 06-15-0109호
홈페이지 www.fairtravelkorea.com | 블로그 fairtravelkorea.tistory.com | 웹카페 cafe.naver.com/ricterrace

